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33 1981년10월1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October 1,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OCT 2 1981

트루도, 방한일정 마쳐

월성 캔두원자로, 불국사등 방문

(서울30일=이태은 본보특파원) 트루도 수상은 2박3일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29일밤 오스트레일리아 멜보른으로 향했다. 방한 3일째를 맞은 트루도 수상은 캐나다연방 대법원의 헌법개정에 대한 판결을 자기의 승리로 단정, 자축하면서 이날밤 부산의 UN군묘지와 경북 월성군의 캔두원자로 건설현장등을 둘러보았다. 트루도 수상은 현장에서 약 250명의 캐나다기술자들과 환담했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7 : 2로 이겼다"고 답했다. 한 기술자의 "트루도 열풍(트루도매니악)이 사라졌다는데요"라는 질문에 그는 "아직은…"아라고 응답했다.

그는 기술자들에게 "당신들은 우리의 우방인 한국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면서 "캐나다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월성군 방문후 헬리콥터로 경주를 방문한 트루도 수상은 불국사등 한국고유의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불국사에서 주지스님의 영접을 받은 트루도 수상은 채식의 점음식으로 점심을 들면서 찬란한 불교예술에 흠뻑 빠졌다.

주지는 「트」 수상에게 108번뇌를 뜻하는 염주 하나를 선물, "이것으로 번민과 고뇌를 잊으라"고 말했다.

이번 한·가 정상회담은 캐나다측이 제기한 캔두원자로 증설, 한국측이 요구한 섬유수출쿼터 철폐등 경제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며, 한국은 「트」 수상으로부터 국제외교에 있어 더욱 확고한 지지를 얻게 됐다.

「캐」,미,호주등지에서,1만8천두 한국, 육용송아지 수입

(서울29일=연합)한국정부는 육우번식을위해 올해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1만8천두의 송아지를 수입한다. 29일 농수산부 발표에 의하면「차롤래이스」,「심맨탈」,「헤리포드」종들이두당 800~1000달러로 수입된다.

수입된 송아지들은 목장경영주와 한국축산조합 직영목장에 분배된다.

제주도 관광객급증 일인 작년보다 3.6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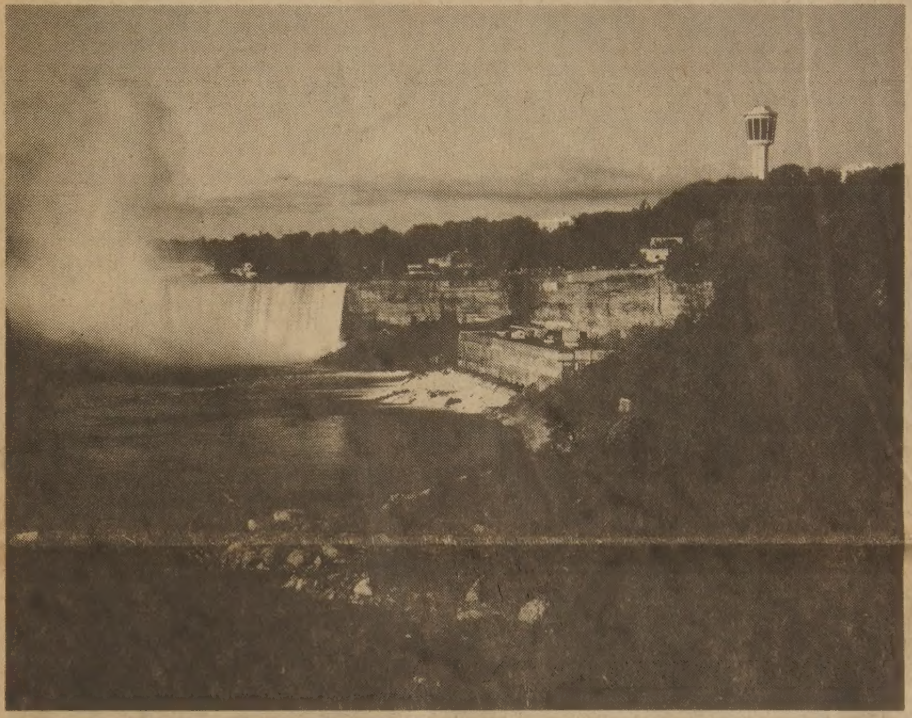
(서울29일=연합)일본관광객의 제주도 관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9일(화)제주도청 관리들의 발표에 의하면 29일 현재 작년 같은기간의 3·6배가 많은 13,225명의 일본인들이 제주도 관광을했다.

관광객들중 많은수의 일본여행사, 호텔산업, 민간항공사 직원들, 관광산업종사원들이 포함되어 오는10월 1일부터 일본, 제주간의 항공노선이 개통되면 더많은 일본관광객의 유입이 예상된다.

◇트루도 수상이 경주에서 국산 자전거를 타고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2 등〉 제6회 사진촬영대회 ③

「나이아가라 · 폴 다운」(칼라)

김 형 찬

풍경사진으로서의 조건은 모두 갖춘 작품이라 하겠다 평행선 구도라든가, 적절한 주제의 배치라든가, 신선한 아침색조, 그리고 대자연의 웅장한 그 멋. 그 하나하나가 험삼을 데 없으나 굳이 결점을 찾는다면 타인의 작품을 모방한 듯한 인상 때문에 생동력이 잃어 보인다.

이 인 덕
한인사진협회장

따로사는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보조

가정법, 부모에 보호할 의무명시

집을 나가 따로 사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는 생활비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온타리오 가정법원은 토론토거주 부부에게 17살난 아들의 생활보조비로 19살이되는 83년1월까지 월280달러씩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학교 선생인 아우브레이와 매릴린·카링턴부부는 2아들과 살고있던중 매릴린의 전남편 소생인 17살의 로버트·델라베일러와 의붓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로버트가 아파트를 얻어 따로살면서부터 문제는 발달됐다.

이번 판결은 4년째 실시중인 가정법개혁안 적용 2번째 사례로써 온타리오가정법원은 16세이상의 미성년자로 집을 나갈경우 부모의 보조를 명령했다.

첫번째 사례는 78년 9월의 판결로 술중독자 계부를 피해집을 나간 차탐의 스코트·하스켈스(당시16세) [illegible] 45달러씩 지불하도록 했다.

신 가정법에 따르면 모든 부모는 18살이하 미혼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동법은 "부모의 보호·에서 이탈한"16세와 그이상의 어린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재판을 맡은 노리스·와이즈맨 판사는 델라베일러군은 부모의 잘못으로 다루기 힘들고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가 됐으며 카링톤부부는 베일러가 12살되던해 아우브레이·카링턴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때부터 델라베일러를 지도하는데 곤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카링턴부부는 델라베일러가 2살6개월됐을때 결혼했다.

78년 9월 카링턴 부부는 [illegible] 힘든것을 깨닫고 친척들에게 보내고 양육비조로 주 30달러를 지급했다.

후에 델라베일러는 친아버지를 만나고 다른 친척에게로 가 살았다. 그는 또 자기 성을 친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 작년 12월 가정법원에 부양 신청건을 제출했다.

그의 자필 청원서에서 베일러군은 12학년에 재학중이고 한달 241달러의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카링턴부부는 충분히 자기를 보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일러는 그의 어머니가 그와 더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말한 79년까지도 집에 돌아 갈 의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와이즈맨판사는 그의 판결문에서 "델라·베일러는 [illegible] 한 어머니집에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베일러군 그의 개인적 자유와 독립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산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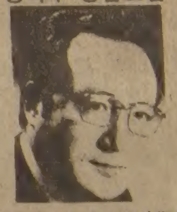
와이즈맨판사는 카링턴부부의 년수입 5만달러로 베일러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강찬영 변호사
534−1129
534−1120
5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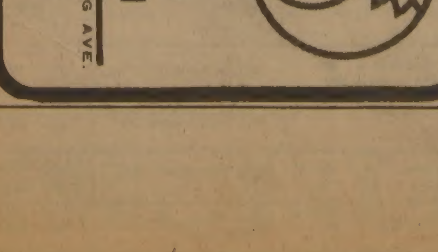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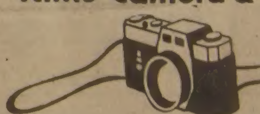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한국인의 통닭집
NEW OPENING SPECIALS
한국사람 입에 맞는 통닭구이 집을 개업했읍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1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 파티용 샌드위치통닭
●각종 Meat취급(불고기, 갈비포함)
※거리 불문코 배달함(단, 파티용 샌드위치 주문은 하루전에 연락을 요망)
미스타 김
미스타 리 올림
658 ½ BLOOR STREET W.
전 화 : 537−0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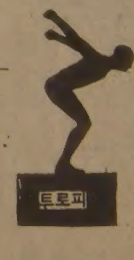


한국관
※특별메뉴
곱창전골백반, 생선초밥,
꼬리곰탕, 즉석불고기,
민어매운탕, 육회 · 어초회
연말연시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대표 : 나 옥 녀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킴스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취급품목 : ①카메라 일절
②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③여권사진및 시민권 사진즉석촬영 (5분이내)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눈속의 산촌(그림 : 한풍렬)

현대한국작가초대전

작가들 도착, 한•가 미술교류에 일익

오는 10월8일~13일 6일간 토론토시내 세라톤센터 원저특설화랑에서 전시 될 「현대한국작가초대전」의화가일행과 작품들이 28일모두 도착, 준비가 완료됐다.

한국과 캐나다의 미술교류로는 첫번째 사업이 될 이번 초대전은 지난 2월창립된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회장 : 차선겸)의 양로원 건립기금을 위한 첫번째 대규모사업으로 수익금 전액은 건립기금에 회사된다.

시내 홀리데이·인에 여장을 푼 작가일행은 2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말 의의가 깊은 사업이다. 양로원의 문제도 이미 들어 알고 있다"면서 "한·가의 문화교류다 공익사업이라는 점에서 학기중이라 바쁘나 시간을 내어 이곳까지 왔다"고를 밝혔다.

이번 현대작가초대전에는 한국에서 이양원, 한풍열(동양화)씨와 조각가 유종민씨, 서양화가 조용각씨외에 캐나다 거주 교포화가로는 서양화가 권승연씨, 동양화가 나영삼씨, 조각가 장연탁씨등이 출품한다.

이들 작가들이 모두 서울대 미대 동문들로 한국에서 각대학 교수직을 맡고 있으며, 한층 미술계를 리드하는 중견화가들이고, 캐나다 교포화가들도 작품활동을 쉬지 않은 미술가들이다.

한국미술계의 사조를 묻는 기자에게 작가들을 "한국미술계도 이제 서구나 일본,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고유의 작품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동양화」란 용어도 이제 점차로「한국화」란 이름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정했다.

조각가 유종민씨는"한국미술계가 서양화를 지금까지는 무조건 따르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 점차 한국적 모습을 많이 가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화가 이양원씨는 "한국예술의 절묘함은 이미 세계에 알려졌다. 국악의 예를 들면서 시조가락에서 보는 정음은 어느 나라 음악에도 없고, 거문고 가락같은 단음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다"면서 "우리 미술의 섬세함은 그 어느 나라 예술품에서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예술가들의 상업주의 경향에 대해 작가들은 "예술의 상업성은 매니저(화상)들이 좌우한다면서 예술가들의 창작성과 매니저들의 상업성이 맞아 떨어질 때 작품의 질도 평가되고, 예술가들의 배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동양화가 한풍열씨는 결론에서 "이제 한국미술계도 점차 작가만으로서 활동만 해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면서 "한국예술의 발전성을 충분히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이 대규모 초대전에 대해 차선겸 회장은 "우리 교민들도 이제는 점점 문화생활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다. 이번에 전시될 작품들이 보통 천달러 이상의 고가이나 성원을 이룰것"이라고 장담했다. 더구나 이번 사업은 양로원 건립기금을 위한 문화사업이며, 공익사업이므로 교민들의 '대성원을 부탁했다.

쉴즈나체사진 법정에 판매권으로 옥신각신

〈뉴욕-AP〉 섹스의 심볼로 등장,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브룩 쉴즈(16)의 10세때의 나체사진 판매권을 둘러싸고 사진사 게리·크로스와 쉴즈양의 모친 테리 쉴즈가 법정 싸움을 벌이고있다.

25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나하니엘 홀만판사는 나체사진의 판매로 쉴즈양이 막중한 피해를 입을것을 고려, 일단 판매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크로스씨는 75년도에 쉴즈여사의 동의하에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판매가 문제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쉴즈양은 75년 플레이보이 잡지 자매지 「슈가앤드스파이스」지에 몸에 기름을 바른채 알몸으로 거품이 가득찬 욕조속에 서있는 모습으로 출연했었다.

온타리오 태권도대회

「온타리오오픈태권도 토너먼트」가 26일(토)토론토대학 체육관에서 9백여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손명수태권도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대회는 유단자 50명등 360여명 선수들이 참가하여 기를 겨뤘다.

경기시작에 앞서 있은김용순무용단의 장고춤등 한국고전무용과 유단자들 의 태권도 시범은 관중들을매료시켰다.

미국에서도 참가한 이대회는 태권도 이외에 궁후, 가라데 도장에서도 여러선수들이 참가, 이채를 띄웠다.

이번대회의 하일라이트는 유단자들의 경기로 「대련」과「형」두가지 부문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대련」과「형」의 유단자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련 :

라이트급
1위 : 로버트·서머스(박종수도장)
2위 : 디노·헤닌스(〃)
3위 : 존·조(이경태도장)

미들급
1위 : 돈·제임스(돈·제임스도장)
2위 : 웨인·허치슨(박종수도장)
3위 : 이도회(이도회도장)

헤비급
1위 : 필립·할로해인(오충원도장)
2위 : 릭·파리스(박종수도장)
3위 : 밥·그래이비(유니파이드도장)

형

1단
1위 : 로이트(퀸·청도장)
2위 : 페르난도·카디즈(피스트 오브 마인드 쿵후협회)
3위 : 스티브·아우스리스(노던가라데)

2단 이상
1위 : 손명철(손명수도장)
2위 : 제임스·홍(홍성인도장)
3위 : 마크·맥카디(유니파이드도장)

5번째「노히트」게임

애스트로즈 놀란라이언

메이저리그 사상 신기록
시속 100마일의 강속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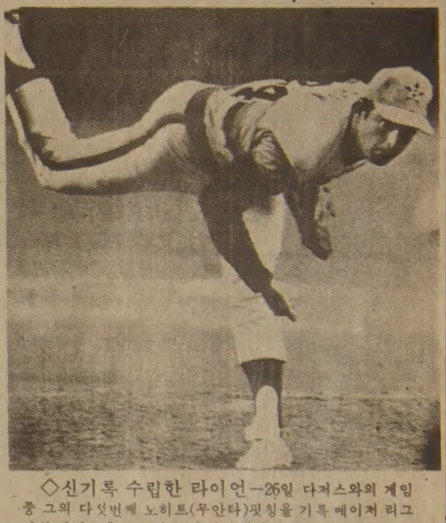
〈휴스턴 〉 휴스턴 애스트로즈의 투수 놀란라이언(34세)은 26일 그의 다섯번째 노히트 핏칭을 기록, 메이저리그 야구사상 신기록을 수립했다.

상대방 팀에게 한번도 안타를 허용하지 않는 노히트는 왕년의 투수 샌디 쿠팩스와 놀란 라이언이 각각 4게임으로 타이를 이루고 있었는데 26일 라이언이 다저스 선수들에게 노히트를 안겨줌으로써 라이언은 최초의 5개 노히트 게임을 기록했다.

라이언은 75년이후 볼티모어 오리올즈, 미네소타 트윈즈,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캔사스시티 로얄즈등 4개팀을 상대로 노히트게임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26일 다저스에게 다섯번째 무안타 핏칭을 안겨준 것이다.

이날 휴스턴의 애스트로돔 실내경기장에 모인 3만2천여 관중은 애스트로즈가 5대 0으로 다저스를 눌러 이기자 라이언스선수에게 기립박수를 오랫동안 보냈으며 그의 동료선수들은 그를 하늘높이 치켜올려 축하해 주었다.

시속 100마일의 강속구를 던지는 것으로 유명한 라이언은 지금까지 오직 1안타만 허용한 게임도 7번이나 기록하고 있다.



◇신기록 수립한 라이언—26일 다저스와의 게임중 그의 다섯번째 노히트(무안타)핏칭을 기록 메이저 리그사상 신기록을 수립한 놀란 라이언의 핏칭 포즈.〈AP〉

美,식민통치 종식키로 마샬群島등 자치허용

〈워싱턴 〉레건행정부는 UN신탁통치안에 따라 2차대전 이후부터 미국이 식민통치를 실시해온 태평양이 팔라우,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등에 대해 곧 자치를 허용하기로 최종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안으로 미국과 각지역의 대표가 만나 미국의 식민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통치권이양 협의를 갖게된다고 한다.

최일단여사 동양화개인전
동양의 고요, 서양의 재기

(몬트리얼 정관성지국장) 여류화가 최일단여사의 동양화전시회가 9월19일부터 10월5일까지 코뮤니티·센터에서 몬트리얼 총영사관 몬트리얼 한인회및 경기여고 동문들 후원으로 열리고 있다.

작년에는 뉴욕 한국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져 호평을 받은 최여사는 경기여고를 거쳐 서울미대 조각과를 졸업했으며 68년 일본의 국제미술교육자 대리참가후 불란서 파리에서 4년간 그림수업을 마치고75년 뉴욕에 건너왔다.

최여사는 특히 동양의고요함과 서양의 재기를 절충함에 독특한 경지를이룬 화가로 알려졌다.

19일 전시회첫날에는 최여사의 실기시범이 있었고, 작년 뉴욕전시회에서 찍은 필림상영과 간단한 칵테일 파티가 있었다.

또한 21일에는「도발」의미술인 25명이 참가, 워크·샵을 가졌으며, 오는 1일 6시부터 3시간동안 또한번의 워크·샵을 가질예정이다.

◇—丹최여사 동양화 한폭

우편요금 인상
국내30¢, 해외60¢

국내1종 우편료가 17센트에서 30센트로 오르게됐다.

캐나다 우편성장관 앙드레·오울렛은 25일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인상우편료의 실시는 신 캐나다 우편공사의 발족과함께 내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른종류의 우편료는 내년4월까지 인상되지 않는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을제외한 해외우편료도 1종우편물의 경우 현재의 35센트에서 60센트로, 3종우편물(인쇄물, 작은소포)은 15센트에서 30센트로 오른다.

등기우편 기본요금은 현재의 1달러50센트에서 2달러, 소포분실에대한 보험료는 20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된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테레비죤선교방송
생명의 말씀
8:30~9:00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12:30~1:00p.m. M.T.V. Channel 47 Cable 4
토론토한인장로교회
TEL (416) 535-6884

배달사고 구독신청
533-2361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성가및 설교테이프
●각종선물 용품, 백과사전(월드북)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오후 2 : 00 영어설교 오후 1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 : 00 성경공부 2 : 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 : 30	3819 Bloor St.W.	741-5411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 예 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 : 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믹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씨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회선	주일 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 : 00 주일저녁예배7 : 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희진	주일오후 2 : 00 학생영어예배 오후 1 : 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6-5163 277-2394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성경공부 2 : 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 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92
빌라델비아 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한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 : 00 토요오전 7 : 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김옥희 전도사	주일오후 2 : 00 수요예배 7 : 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낮 1 00 저녁 7 : 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회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 : 30 4 : 00 수요오후 7 : 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98 Finch Ave.W.	225-4430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 : 30 일요오후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웅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8 : 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용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인환	주일오후1 : 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 예 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 : 00 낮12 : 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예 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평신도복음선교회	선교회	예 배 주일오후 2 : 00	2501 Warden Ave.	298-9031

◇경주 석굴암을 방문한 트루도 수상이 대석불 앞에서 감탄하고 있다.

㊋ 트루도 수상 한국방문 (보)

[CP전송=본 지사 특약]

◇트루도 수상이 부산 유엔군묘지중의 캐나다군 묘역을 걷고있다.

◇불국사 앞에서 주지의 영접을 받는 트루도 수상이 합장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있다.

◇트루도 수상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비석에 헌화하고 있다.

낭비없는 광고효과는 한국일보에서!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회 장: 이 형 인
부 회 장: 임 철 원
〃: 김 명 정
이 사 장: 김 태 진
부이사장: 전 윤 식

이사회 소식

총회대비 회무처리

지난주 25일(금)하오8시 협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정기이사회가 24명 이사출석으로 개최되었다.

근래에 드문 출석률을보인 이번회의에서는 업무, 재정보고, 정기총회 대비선거세칙 심의가 있었다.

김태진 이사장의 개회선언과 박경택 서기이사의성원보고후 즉시 이형인회장의 업무보고, 최복기 총무의 재정보고가 있었다.

재정보고의 주요 내용은 9월말로 회계년도 마감이 되기때문에 가결산된 집계를 밝혔는데, 총수입 $105,094.28, 총지출 $69,105.17 였으며, 약 $35,988.51의 이월금을 낳게 했다는 것이다.

이어 신년도 예산심의로 장시간 열띤 토의를 거쳐 보다 중요한 사업계획에의 한 예산을 책정하여 모든 회원들이 긍정할수 있도록 계수조정과 새항목 신설로 차기회의에서 심의하게 하자는 지배적인 의견이 받아들여 졌다.

9시40분 15분간의 휴회후 다시 속개된 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세칙을 축소심의했다.

진지한 의견들은 다음정기총회에서 공정한 선거를통하여 협회의 새 집행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지를나타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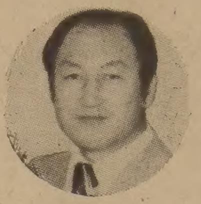
밤이 깊은줄 모르고 진행된 회의는 자정12시15분경그회무를 전부 끝마치고 폐회하였다.

김태진 이사장은 정기총회 이전에 한번더 이사회를 소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회계년도가 9월말로 마감되어 10월 이후에는 새 예산을 집행 해야 하므로 그 공백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곧 모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상세한 내용은 공고를통해 알려지겠지만 정기총회는 11월27일(금)하오4시 Don Vally 할리데이·인에서 개최될 것이며, 정 부회장입후보등록 공고는 총회공고와함께 10월9일자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교민지도자들과 협회간부들

사은의 디너파티



◇이형인 회장

9월29일(화) 저녁5시 Harbour Castle 토론토 힐튼·호텔에서 40여명의 교민사회 지도자들과 협회간부들이 자리를 함께하여조촐한 디너파티를 가졌다.

이는 현 집행부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가고, 그동안 교민사회가 협회발전을 위해 베풀어준 협조와 성원에 감사와 사은의 뜻을 표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날 참석한 이들중에는 박영철 부총영사를 비롯, 박인순 한인회장, 이장우외환은행장, 한상훈 신용조합이사장, 조성호 무역관장, 교역자회의 회장 홍순관목사, 이상철목사및 조한철박사, 언론기관 대표들과 협회의 전회장 김정곤, 전이사장 김현모씨등이 초청되었다.

초청인사들은 실협의 발전과 성장및 단결을 통하여 캐나다 지역사회와 한인커뮤니티의 조화와 적응 그리고 봉사를 이룰수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한편 협회측에서는 이형인회장이"그동안 여러분이 많은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협회를 이끌어 나갈때에 큰 힘과 격려가 되었던 것을 감사하며, 계속 끊암없는 관심과 깊은유대를 협회와 맺아가기를 부탁 드리면서 소찬이나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서 홍순관목사의 식사기도와 서로의 건강을기원하는 축배후 마련된 음식을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며 시간가는줄 모르는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파티가 끝났다.

특별히 교포올갠 연주자 박홍씨의 솜씨는 실내의기분을 감싸주는 조용한음악으로 사은의 뜻깊은 저녁 만찬의 흥을 한층돋아 주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미망인의 감사답신

지난 9월17일 고 이봉재선생 묘소에 협회이사임원이름으로 헌화한 것을 기보한바 있는데, 미망인 홍신득 여사에게서 감사의답신이 왔다.

여사는 런던에 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은"일주기를 맞이하여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기억하여 화환까지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회가 번영하고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협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된 것이었다.

다시한번 유족을 기억하는 숙연한 마음을 갖게하는 소식이었다.

— 88年 올림픽 —

서울개최 檢討

한국을 有利한 후보국으로 觀測

〈바덴바덴·서독-로이터 [illegible]지사〉 서울이 88년 하계세계올림픽의 유력한 개최후보지로 등장하고있다.

28일 폐막되는 올림픽 위원회는 88년 하계및 동계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케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하계올림픽 개최권을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있다.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의 관측통들은 지금까지 올림픽을 한번도 개최한적이 없는 한국이 올림픽 개최국을 하나더 추가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한국은 88년 올림픽 개최에 23억달러를 책정해놓고 박영수 서울시장을 단장으로한 올림픽 유치단을 현지에 파견, 현회원국을 상대로 치열한 득표작전을 펴고있다.

64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일본도 모도야마, 나고야 시장등을 보내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일부 회원국들은 앞으로 7년후의 한국의 정치안정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올림픽 회원국중 9개 공산국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미·영 올림픽 위원회는 서울과 나고야 모두 올림픽개최에 필요한 기술과 경기장 시설을 갖출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⑥⑧

팔리·모왓 원작, 천 재 [illegible] 옮김

그는 얼굴에 웃음을 띄웠다.

그가 대답한 내용은 인용할수 없지만 요점은 그의부인 하우믹이 이문제를 기꺼이 잘 해결해 줄것이니까 나는 추위를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옷을 일부러 새로지을 필요가 없다는얘기다. 이제나는 거의 포기할려다가 마지막으로 씹는 담배를 꺼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새겨울 털옷 값으로 씹는담배가 몇개나 필요하지?" 나는 오텍이기분이 상할줄 알았는데 이번엔 더크게 웃으면서 만약에 그날저녁 눈이오면이 주내에 털옷을 장만해 주겠다고 말했다. (겨울옷준비는 첫눈이 오기전에 시작하지 않는지도 모름)

두봉지의 담배로 때울수 있을것 같았다.

그래서 사향소 에게는잘 어울릴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옷을 지었다는 어머니한테부탁하기로 했다.

오텍은 그자리에서 사슴가죽끈으로 허리, 키, 그리고 팔의 칫수를 쟀다. 각칫수마다 가죽끈에 매듭을지어놓고 표시를 해가지고마을로 돌아갔다. 리틀힐스의 가을날은 겨울이 오면서 하늘에서 해가점점 없어져 버리니까 매우 짧아졌다.

오래된 사슴뼈로 포장이 되어있는 오텍의 캠프는가을에잡은 수사슴 가죽으로 바닥을 깔아놓았다. 그중 50개는 네귀퉁이마다 말뚝을 박아놓고, 끝에는 잡아늘리려고 돌을 매달아 놓았다.

그리고 시퍼런 색갈의생가죽이 희끄무레한 마른가죽으로 변하고 있었다.

파리한테 물린자리가 천연두를 앓은 자리같이 점점이 나 있었으나 가을이 되자 잡힐때쯤에는 이미커치기 시작한 작은 알집은 가죽에 붙어있는 기름기와 함께 문질러 없어졌다.

하우믹은 텐트에서 나와 거의 마른가죽을 골라내서 털속을 비집고 튼튼한가살펴보았다. 그리고 텐트로 가지고 들어가서 불옆에쪼그려 앉아 연기를 쏘여가며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작업은 간단했다.

하우믹은 딱딱하게 굳고 처리가안된 가죽을 굳은손바닥으로 부드러워 질때까지 부벼댔다. 그런다음 오텍의 어머니가 본을뜬대로 잘라서 새 겨울옷을 짓게 되었다.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것이 모두 쉬운것은아니었다.

이 사람들이 신는 장화는 카리브 가죽으로 만들어 졌을것이고, 수사슴 가죽중에서 제일 두껍고 좋은 목에서나온 가죽이다. 이 가죽은 털이 썩을때 까지 물속에 오래 담가두었다가 말려서 좋은 양피지처럼 얇아질때까지 구부러진 여자용 칼로 긁어낸다.

사슴의 머리가죽으로 만든 구두창은 해안선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개가죽창 처럼 튼튼하지 않지만 비교적 제일 튼튼한 편이다.

아직도 사슴의 등심에서 뽑은 힘줄로 장화나 옷을 기운다. 그리고 하우믹은 사슴의 어깨뼈를 떼어서만든 조그만 바늘을 사용한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놀라웠다. 여름용 장화는 물이새지 않도록 기워야하기 때문에 이음매듭이 꼭맞고 빈틈이 었도록 기운다. 기운자리는 어떻게나 잘 꿰맸는지 육안으로는 꿰맨자리를 셀수없을 정도다.

여름용 장화처럼 모든장화가 그렇게 만들어지지않고 겨울용 장화는 털로 밑창을 대서 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털로된장화중에는 맨발에신는 토끼나 어린사슴 새끼털로 만든 아주 부드러운 슬리퍼같은것도 있다.

신과 옷을 만들고 가죽을 말리고 부드럽게 하는 이 모든일은 여자들이 맡아서 한다. 그리고 지금은 여자들이 이런일로 분주한 계절이었다.

여자들이 하는일은 몇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표를 작성한다면 끝이 없을것이다.

사슴가죽으로 여자들이 만드는 많은것 중에는 가방, 물통, 장식품, 옷, 텐트, 카약덮개, 이불등이다. 사슴가죽만 풍족하다면 일거리는 얼마던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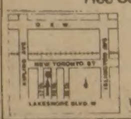
나의 겨울용 털옷 즉 나의 겨울집을 오텍의 늙은 어머니 칼라가 만들어 주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옷을만드는동안 한번도 나를 만나보지 않았다. 옷이 다되어 오텍이 가져왔을때 입어보니 잘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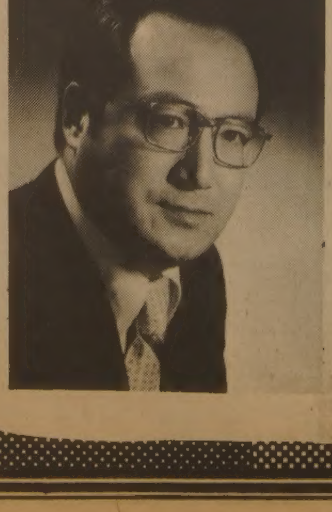
파카의 바깥쪽을 사슴의 흰 뱃가죽으로 완전히 덮어씌워 예쁘고 품위가 있도록만든 그녀의 솜씨로보아서 담배 두봉지 값치고는 너무나 헐값이었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강학수종합보험



● 한국에서 10년간 보험근무
(American International Underwriter)
● 뉴욕보험대학수료
● 카나다에서 15년간 생명보험취급
● 금년도 종합보험으로 확장

◎상 점 보 험
◎화 재 보 험
◎자동차보험
◎생 명 보 험
◎은 퇴 연 금
◎R. R. S. P

☎: 868-0922(B) 622-5147(R)

波勞組 제2期 전국大會 개막

어제 그다니스크서 경영권受諾여부 投票

◇폴란드議會, 거수표결로 經營權승인 폴란드 의원들이 25일 국영공장의 자율경영에관한 법안을 거수로표결하고있다. 【바르샤바25日 AP電送=聯合】

議會선 勞組의 經營權승인

정부·노조간 人事 거부권 原案후퇴 對立소지

【바르샤바25日AP=聯合】폴란드의회는 자유노조 제1차 전국대회 제2기회의 재개를 하루앞둔 25일 노동자들에게 自律경영권을 부여하는 정부—자유노조간 타협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폴란드 자유노조 제2기전국대회는 26일 그다니스크에서 재개되어 폴란드의회와 자유노조지도부가 22일의 타협을 거쳐 의회를통과한 이 국영기업에 관한 새로운 법안의 수락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예정인데 이미 비드고시치 로즈등 일부 자유노조지부가 원안에서 후퇴한 타협안에 반발함으로써 정부 노조간에 새로운 對決이 촉발할 위험을 고조시켰다.

이날 폴란드의회에서 기권 15표를 제외한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법안은 ①공장경영자들을 정부 또는 노조가 임명하되 ②서로 상대방의 인선에 거부권을 갖고③거부권행사로 인한 분쟁은 법원의 중재를 받도록 규정하고있다.

이 법안은 의회내 강경파 의원들의 거부움직임에직면, 지난22일 그다니스크에서自由노조지도부와 정부측간에 이루어진 타협법안으로서 노조측이 당초 공장경영진을완전히 자율선출하려던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 법안은 또 노조—정부간의 대화로 결정될 중요기간산업의 경영진도 정부가독자적으로 임명하도록 하고있으나 기간산업의 범위와 숫자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자유노조는 공장자율경영법안이 노조의 뜻에 맞지않을 경우 이 법안에 도전할것이라고 앞서의 1기전국대회에서 밝힌바 있으나 자유노조가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정식 도전을 시도할지는 25일현재 분명치 않다.

그러나 비드고시치 로즈플로크등의 자유노조 지부노조원들은 이미 이 법안에 반발, 항의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폴란드의회는 이밖에 보이체흐·야루젤스키首相의 對노조강경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사회질서 파괴및 위법행위·불안조성행위의 종식」을 촉구하고 그다니스크 스체친 등지에서 이루어진 협정정신에따라 자유노조가 행동의목표와 원칙을 정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波、美노조원 訪問불허

자유노조서 전국大會에 招請

產別노조會長 비난

【워싱턴25日AP=聯合】레인·커클랜드 美AFL-CIO(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회장은 25일 폴란드당국이 AFL-CIO회원들의 폴란드방문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커클랜드회장을 비롯한 AFL-CIO회원들은 폴란드자유노조로부터 26일 그다니스크에서 개막되는 자유노조 제2단계총회에 참석토록 초청을받고 폴란드당국에 방문허용을 요청했었다.

커클랜드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폴란드당국이 美노조원들의 입국에필요한 비자발급을 거절했다는통고를 駐美폴란드대사로부터 전달받았다고밝히고 우리는 폴란드정부가 총회참석자를 결정할수있는 노조의권리를 부정한데 격분을 금치못한다고 말했다.

AFL-CIO는최근폴란드노조에 25만달러의 원조를 제공, 蘇聯언론들의 빈번한 비난대상이 되어왔었다.

波 뉴욕弘報室 개설에 蘇言論들 非難

【모스크바25日=AP聯合】소련은 25일 폴란드 자유노조가 뉴욕에 弘報사무소를 개설한것은 자유노조가 서방의 反사회주의자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또다른증거라고 비난했다.

관영 타스통신은 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들이 미국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있으며 뉴욕에있는 자유노조홍보사무소를 통해 누구에관한 어떤정보를 제공하려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이홍보사무소는 폴란드위기에 관한 美의회의 여러성명과 美노동총동맹산업별회의(AFL-CIO)의 對자유노조 재정지원등을 포함한 미국의 對폴란드사태개입을 보여주는 새로운 유대관계의 증거라고 비난했다.

3萬鑛夫 파업

波노조원 체포항의

【바르샤바25日AP=聯合】약 3만명의 폴란드 광부들이 폴란드 남부 카토비체에서 자유노조간부 1명이 당국에 체포된데 항의,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韓·加 頂上회담

트뤼도首相 來韓 2泊3日

캐나다의 피에르·엘리오트·트뤼도首相이 南悳祐 국무총리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하기위해 27일 상오11시30분 來韓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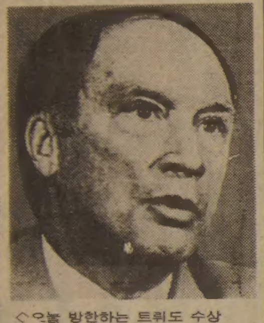
공식수행원 18명과 4명의 비공식수행원을 대동하고 來韓하는 트뤼도수상은 3일간의 訪韓기간동안 全斗煥대통령을 예방, 국제정세전반과 양국간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교환하며 28일하오4시 南총리와 회담을갖고 두나라간의 경제협력과 通商증진방안을 논의한다.

트뤼도 수상은 總理회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訪韓의 의의와 성과를 설명할예정이며 月城원자력발전소, 佛國寺등지를관광시찰한후29일하오8시30분 離韓한다.

트뤼도수상은 28일 상오10시30분 중앙청광장에서 베풀어지는 공식환영행사에 참석한다.

수행원은 다음과 같다.

▲로이·맥라렌資源省 政務차관겸 下院의원 ▲케네드·로빈슨下院의원 ▲마이클·핏필드樞密院차관 ▲게이란·루어 駐韓캐나다대사 ▲윌리엄·바우시에農業차관 ▲에드워드·존슨首相보좌관 ▲L·H·스미드外務省北美局담당부차관보 ▲로버트·파울러 수상실 외교국방담당보좌관 ▲토머스·델워드外務省亞·太담당부차관보 ▲프란시스·피트리商工省亞·阿·中東담당국장 ▲데이비드·힐튼財務省 국제협력국장



◇오늘 방한하는 트뤼도 수상

日 自衛隊간부訪韓

【東京25日=聯合】일본 육상자위대의 나마다메(生田目修)막료장이 李喜根 공군참모총장 초청으로 29일부터 10월3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밀린賃金 政府서 代拂

民正의원立法 50坪이하 無許주택 陽性化

6개法제정、5개法개정안

民正黨은 지난 선거때의 각 公約사업을 議員立法 활동을통해 적극반영시킨다는 방침아래 이번 정기국회에 「賃金의 지급보장등에 관한 법률」등 6개 법률안과 「토지收容法중 개정법률」등 5개 개정법률안을 議員立法으로 제출, 처리키로 했다.

民正黨은 26일상오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淸算滯拂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정하는 國策 금융기관에서 代拂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賃金의 지급보장등에 관한 법률안」과 延面積 1백65평방m(50평) 이하의 무허가주택을 양성화 시키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을 議員立法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날 中執회의는 또 6·25사변으로인해 土地나 林野臺帳이 분실된 토지중 소유자 복구가안된 토지의 소유자복구를 가능토록한 「부동산 소유권 移轉登記에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관한 개정법률안」「토지수용법중 개정법률안」등 5개 개정법률안도 이번회기에 처리키로했다.

民正黨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6개 법률안과 5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사회교육법안=건전하고 능력있는자는 누구나 사회교육을 실시할수있게하고 일정시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대우가 부여되도록 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안=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및 특별법에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구매계약을 체결할때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구매증대에 노력한다.

▲산업안전보건법안=일정한 사업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한다.

특정 有害물질에대한 제조 사용의 제한과 취급상유의사항 표시등 노동자의 위험방지및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사업주는 조치를취해야한다.

▲賃金의 지급보장등에 관한 법안=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滯拂업체에 자금을대출한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대책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정부이외의 者가 出捐한다. 사업주에게 체불발생과 休廢業時 사전보고를의무화한다.

▲특정건물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안=정리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백65평방m이하의 무허가주택, 기타 건축물로 구분,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정리대상 건축물중 준공검사필증을 받지못한 건축물에대해 시정명령및 처벌조치토록 한다.

▲마을금고법안=전체금고를 구성단위로한 연합회를결성한다. 관청과 연합회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임원에대한 벌칙을 보강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特措法개정안=6·25사변으로 인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분실된토지중 소유자복구가 안된 토지의 소유자복구를 가능토록 한다. 잔여未登記토지및 건물의 등기가 가능토록 신청기간을2년연장한다.

▲교육법개정안=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려는 자는 大入학력고사를 면제하고 개방산업대학의 입학자격·수업연한·編制등은 대통령令으로 정한다.

▲公演法개정안=전속출연자 등록제도와 공연자가 갖춰야할 人的·物的기준을 폐지하고 1년이상 공연실적이 없는경우를 등록취소요건에서 삭제하는등 공연자등록제도를 개선한다.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개정안=외국도서 수입업자도 무역거래법에의한 수입허가없이 수입할수있도록 한다. 실수요자에대한 특혜규정에 의거, 수입한 간행물을 판매한자에게도 벌칙을 적용토록한다.

▲土地收用法개정안=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地價告示지역이 全國化함에 따라 이를 一元化하기위해 이법에 별도 규정된 地價고시제도를 폐지한다.

공공用地收買협의가 성립되지않을때 起業者의 수용신청지연방지를 위해 토지소유자등에게 수용裁決신청을 요구할수 있게하고 이 경우 裁決신청을 의무화한다. 보상금의 算定방법및 기준등에 대한 일관성유지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法令을 準用토록 한다.

主禮·달력配布 禁止

民正 국회開會중·깨끗한政治따라

民正黨은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지역구출신 의원들의 달력제작 배포를 금지하기로 하는한편 국회開會중에는 의원들이 主禮를 서지말도록 시달했다.

權正達 사무총장은 이날 『民正黨은 깨끗한 정치구현이라는 黨이념에따라 낭비가많은 지역구용 캘린더제작을 하지않기로했다』면서 『黨소속의원들의 贊反조사결과 캘린더제작반대가 다수로 나타났기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논의되고있는 공무원의 黨政순환근무제와 관련, 『民正黨이 정책정당으로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수, 경영인등 각계의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려는 것은 사실이나 黨政순환근무제를 제도화시킬 수는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美, 한국에1億여弗 항공기部品등 販賣

【워싱턴25日=聯合】레이건美행정부는 한국에 공급한 美製항공기및 기타 무기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총1억1천만달러상당의 항공기부품및 기타 지원장비들을 한국에 판매키로 결정했다고 美국방성이 25일 발표했다.

국방성은 이같은 항공기부품의 對韓판매가 東아시아의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우방의 안보증진에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美國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했다.

世界貿易자유화共同노력

徐商工、스위스大統領예방

스위스를 공식방문중인 徐錫俊상공부장관은 25일상오(현지시간) 쿠르트·후르글러 스위스 대통령겸 법무장관과 후리츠·호네거 부통령겸 경제상을 차례로 예방, 韓·스위스양국간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26일 상공부에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徐장관은 후르글러 대통령과 만나 자유무역 실천에 스위스가 앞장서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스위스와 교역을 증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후르글러 대통령은 韓國의 정치·경제성장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자원이없는 스위스는 韓國과 공통점이 많아 세계무역자유화에 계속적으로 공동노력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객 2百萬유치 外貨 10億弗목표로

정부는 26일 오는 86년까지 외국관광객 2백만명을유치, 외화10억달러를 벌어들인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서울, 부산, 慶州, 濟州등지에 대규모 관광객전용쇼핑센터를 건립하고 제주도를 국제적인관광명소로 개발하며 관광요정 토산품점등을 현재 등록제에서 자유화한다는 내용의 「80년대 관광기본정책」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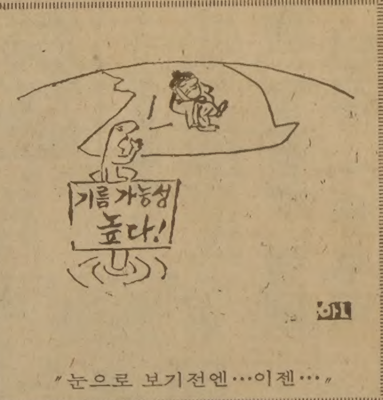
교통부가 26일 중앙청에서 南悳祐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정책심의회에서 보고한 「80년대 관광기본정책」에 따르면 ▲외국인 쇼핑관광객을 적극유치하기 위해 공항등에 국산품과 외래품을 동시에 면세로 살수 있는 대규모 관광객전용 쇼핑센터건립을 내년부터 착수하고 ▲제주도를 「동양의 하와이」로 불릴만큼 종합관광명소로 개발하기로하고 그계획을 내년중에 확정하며 ▲제주中文단지는 그 계획을 보완하여 86년까지 완공하고 ▲관광음식점 토산품등 관광업체를 자유화하여 관광사업육성을 점차 민간주도형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공직자 倫理法 會期末에 처리

국회 內務委는 정기국회가 막바지 단계에들어가는 12월초부터 公職者倫理法案을 심의처리 할 방침이다.

金宗鎬내무위원장은 26일 公職者倫理法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12월4일께부터 內務委 전체회의에서 본격심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社會漫評



"눈으로 보기전엔…이젠…"

地平線

집 전화에 엉뚱한 전화가 자주 걸려 온다. 평범한 전화번호, 그것도 10년넘게 갖고 있는 번호인데, 그까닭을 알수가 없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어쩌다 집에 있노라면, 어김없이 두서너차례 그런 전화를 받게된다. 거는 사람의 잘못인 경우도 있으나, 기계의 잘못인 오접속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전화일수록 밤과 낮, 시간이 없다. 새벽에도 걸리고 한밤에도 걸려온다. 그러니 짜증이 날수밖에 없지만, 전화를 잘못 건 쪽의 말투가 더욱 신경을 거스른다. 잘못을 알고, 『미안하다』말한마디 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나 될까말까—. 친절하게 응대하면, 『어디 아니냐?』『누구아니냐?』 실없이 말이 많고, 조금 볼멘 내색을하면 당장 욕설이 돌아온다. 예의를 잃어버린 禮儀之國의 말투다. ▼전화 한통화를 놓고 예의요, 매너요 하는것은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예의이상으로 요긴한 생활의 지혜다. 전화통의 욕설은 「가는말이 고와야…」의 속담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잘못걸린 전화를 퉁명하게 끊어버리면 또한차례 그런전화를 받기가 십상이다. 저쪽에서 번호를 잘못 기억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럴 바에야 친절하게 『몇번에 걸었읍니까』묻고 잘못을 가르쳐줌만 못하다. 그게 짜증속에얻은 교훈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백50만대가 넘는 가입전화가있다. 지난 5년사이 전화는 3배가늘었고 앞으로 5년안에 다시3배로 늘어난다. 전화 보급률은 지금의 1백명당 8·9대가 25대꼴이 된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電話社會」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컴퓨터의 마력이 합쳐질때, 전화의 구실은 엄청나게 커진다. 전화를 잘쓰고 못쓰고가, 잘살고 못살고를 갈라놓을수도 있다. ▼그렇다면 「電話社會」다운 매너를 하찮다고 할수는없다. 그것은 교육의 한 대목이라야 옳다. 국민학교 말하기 교육에 전화통화법을 포함하는 것은 그래서 꼭 필요하다. 물론 「成人敎育」도 아쉽다. 앞으로의 전신전화공사가 新入社員의 전화교육을 맡아해주는것은 그런데 뜻이있다. 그 수강생이 작년 한해 21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잘못걸린 전화로 인한 통화폭주를 막는 효과도 있다. 「電話社會」를 선도하는 체신부가 할일은, 돈을들여 전화댓수를 늘리는 것만은 아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432.50
은 : 온스당 US 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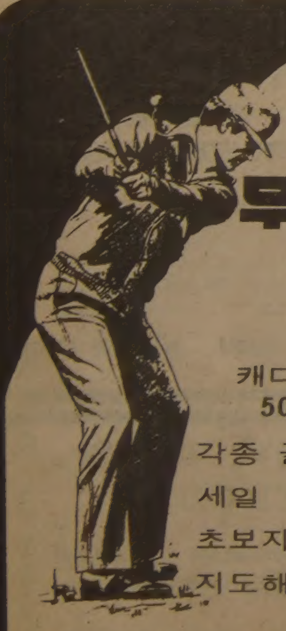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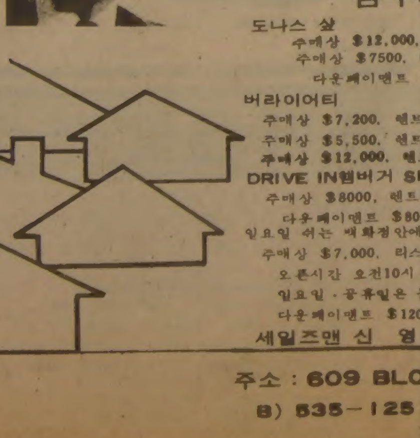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이대환 不動產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항)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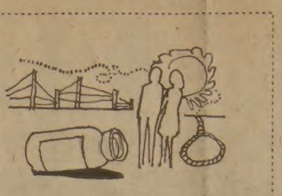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아침에

生死觀은 사람따라 다른데…

夫婦同伴자살 西歐式자로만 재야되는가



崔臣海 〈淸凉里腦病院長〉

忠南大學校 前총장이던 朴교수부처의 부부동반자살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문제점을 안겨주었다. 또 한 朴교수사건에 영향을 받기라도 한것처럼 남편을 졸지에 잃은 다른 젊은부인이 투신자살소식이 보도되고있다.

朴교수부부는 한국에서는 남을 가르치고 남을 지도하는 지식인들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한 사건과는 그 질과 고민이 달랐을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신문보도를 읽은 나로 하여금 수삼일간의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속해있는 민족의 道德律과 生死觀이 첫째로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종교와 법률과 의학윤리등의 여러 면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지, 이것을 미국에서 발생한 중환자의 안락사문제와 동일면에 놓고서 曰可曰否한다거나 미국사람들의 논평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시켜서는 안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사건은 남편인 朴교수는 간암이라는 確診이 내려져서 병원으로 고생하던 사람이었고 의사인 부인도 지병이 있었다는데, 간암이라고 확실한 진단이 내려지면, 대개는 3개월이내에 죽는병이며 여하한 치료를 하더라도 완치 불가능한 병이란는것을 염두에 두고서 생각을 進行시켜주기 바란다.

요새 많이 발달된 抗癌劑를 사용하면 어느정도 생명은 연장되는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치는 있을수없는것이 현대의학의 상식이며, 간혹 치유되었다는 例가 있기는하나 이것은 간암이 치유되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간암이라고 誤診되었다고 보아야할것이다.

둘째문제는 간암에 걸리면, 막판까지 환자의 의식은 淸明하여 자기문제의 결정을 스스로할수있다는 점이다. 뇌일혈이나 頭部外傷으로 무의식상태로 식물인간화된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는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셋째는 간암이나 또는 간에 붙어있는 脾臟의 질환은 몹시 아프다는 점이다. 간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환자는 아픔에 견디기 어려워서 「모르핀」따위의 진통제를 놓아주더라도 그 통증억제 시간이 다른병환자에 비해서 짧을뿐만 아니라, 설사 진통제를 쓰더라도 注射量을 幾何級數的으로 매일 增量시켜야만 진통효과가 나는 것이므로 막판에 가서는 간암환자라기 보다는 마약중독자라고해야할 만큼 그 부작용은 무서운것이다.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마약주사를 連日해서 마약중독자로 만드는 것만이 의사윤리에 적합하느냐 하는 의심도 생겨난다.

그러므로 간암이 進行되어 괴로와하는것을 옆에서 보면 그 처량한 꼴은 그야말로 目不忍見일을 의사인 나는 여러번 보아왔고 의사인 朴교수부인 역시 잘알고 있었을 것이다.

朴교수는 죽음을 決行하기 수일전부터 자기의 묘지문제와 장례절차와 비문까지도 가족에게 지시했다니, 그의 죽음은 단순한 충동적인 죽음도 아니었고 여러날을 두고 심사숙고와 부부합의에서 이루어진 決行이라는 점에서 식물인간화된 환자에 대한 안락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다시한번 나는 강조하고 싶다.

다시말해서 朴교수는 淸明한 의식에서 여러날을 두고 深思한 끝에 택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의 부인은 의사로서의 自責과, 자기의 심장병과 또는 법률적·종교적인면에서 스스로 자살의 길을 택하여 남편의 뒤를 따랐으니, 사후에 이문제를 법률가의 의견이나 종교가의 의견을 들어본다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朴교수나 그의 부인의 이번決行은 波相的으로 생각한다면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괴로움으로부터 逃避」라고 말할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심각한 고통」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자세에서 나온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남편이 죽은뒤에 부인이 남편을 뒤따르는 자살에 관해서 말하고싶다.

자살에 관해서는 그가 속해있는 민족성이라든지 종교관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진다.

기독교신자라면 자살은 어디까지나 용서받지못할 犯罪에 속하며, 얼마전까지만해도 서양에서는 자살자의 장례식에는 신부나 목사가 執禮를 거부했고, 敎會墓地에 매장하기조차 거부했던만큼 死後에도 어떤 형식의 사회적罰을 내려왔다. 서양인들은 예수교를 國敎로택하기 전부터 자살을 범죄로 취급했기에, 자살했다는 表現을 「코미트 슈사이드」라고 한는데 「코미트」라는 낱말 뜻은 「범죄를 저질다」는 뜻이다. 즉 자살이라는 범죄를저질렀다는뜻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있고, 또 우리 선조가 옛날부터 信奉해온 원시종교인 巫敎(샤머니즘)는 사람의 죽음을 서양인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왔음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다.

우리말에는 「죽었다」는 표현도 있지만, 보다도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또는 「갔다」는 낱말을 많이 써왔다.

「돌아가셨다」는 뜻은 이승(現世界)에서 살다가 저승으로 돌아가버렸다는 뜻이다. 이세상에서 살다가 저세상으로 이사가버렸다는 식의 표현을 해왔던만큼 죽음은 滅亡이 아니라 「사는 세상을 옮김」으로 생각해왔다.

그러기에 옛날 三國時代의 韓人들은 싸움터에서의 죽음을 현재의 한국인처럼 그리 심각하게 슬퍼하지 않았던 탓으로 옛날 韓國人은 적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外敵과 용감하게 싸울수 있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장례식도 외국인(서양인)같이 조용히 엄숙하게 집행하지않고서, 초상집에서는 노름을 하면서 떠들어대기도 하고, 밤새워 술마시고 高聲放談하며, 묘지로향하는 장례행렬에 또는 땅속에 棺을 묻을때에도 으레 노래를 하고있다. 서양에서는 醉한 술장부는 한국민족이야만해서 死者에 대한 禮를 缺한다고 妄言하는 소리도 들은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者들의 무식한 탓으로 떠들어대는 말임에 틀림없다.

샤머니즘的 생각은 나(我)라는 영혼이 나의신체속에 들어와서 얼마동안 살다가 내몸을떠나서 영원한 세상, 다른세상, 본래 살던세상으로 떠나버리는것이 죽음이며, 死體는사람이살다가 떠나버린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생각해왔다.

마치 火田民이 오막살이 집에서 살다가 딴곳으로 이사해버린뒤의 낡은 초가집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死體는 산에다 그냥 버리는 경우도있었고 風葬, 鳥葬따위도 해왔다. 이건 우리민족뿐만 아니라 오래된 민족에 공통된 民俗이었다.

샤머니즘을 믿어온 한반도에 千餘年前의 불교를 비롯하여 儒敎·道敎·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의 종교관이나 생활문화를 변화시켰고 죽음과 장례와 묘와 제사등에 큰 변화를 일으켰지만 그 햇수를 비교해보면 新石器時代부터 살아온 우리 선조들이 불과 천여년전에 받아들인 外製宗敎를 믿는 척은 해왔지만 아직도 骨髓깊숙이 박혀온 샤머니즘的 思惟를 완전히 불식하지는 못한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다고 外製宗敎나 外製思想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것에 대해서까지부인하려는것은아니다.

죽음에 관해서 종교마다 다르게 해석하고있는것도 사실이다. 가령 힌두敎를 믿는 인도인은 남편이 죽으면 그의 부인은 자살하든지 또는 산채로 남편무덤에 함께 묻는 풍습을 지금까지 고수한다.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라도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죽는다. 이것을 삿티 (Sattee) 라고 하는데, 영국인의 자전을 찾아보면 이 古代惡風習은 영국총독지배후에는 없어졌다고 적혀는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다고한다. 사티는 힌두말로 「바른 즉 眞實이니 善이라는 말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부인의 殉死를 善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된다.

莊子는 死生爲一條니 視死如生이라 했고 淮南子에는 死는歸라했다. 즉 죽음과 삶은 다 같은것이고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돌아가는것 (歸) 이라고 했으니 죽음이나 자살이니 하는것을 서양인같이 죄악시하지 않았다는 말이된다.

莊子는 말하기를 「死生爲晝夜」라 했으니, 삶은 낮이오 죽음은 밤이니 삶과 죽음이 합쳐서 하루 (一日) 를 이룬다는 뜻이다.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번 朴교수의 죽음은 서양인들이 식물인간화된 환자에 시행하는 안락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서양인들이 절대 犯罪視하는 자살이라는것도 문화와 종교가 다른 사회에서는 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도 언젠가 나라를 빼앗기자 비분강개한 閔忠正公의 自害는 서양인식으로는 나쁘다고 하겠지만, 우리 固有의 道德律로는 높이 찬양할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에 忠正路란 거리명칭을 붙인게 아닌가, 즉 우리의 문화는 善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살이 아직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朴교수부처의 이번 決行에 대해서 서양식道德律·宗敎觀·裁判例로만 따질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였다. 이게 어디 ○×로 결정될 문제냐.

삶과 죽음은 社會의것인 동시에 어디까지나 자기자신의 것이다. 한국인으로서는 최고知性人이었던 朴교수부처는 스스로 택한 길을 걷기위해서 合意下에서 決行하여, 지금은 딴 세상으로 돌아가서 함께있다.

이글을 쓰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병에 걸려서 내 妻에게 그런 일을 부탁했을때에 妻는 내말을 따라서 決行했을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내 옆으로 왔다고 친다면 저승에서 나는 내妻에게 무슨 말을할것인가?

「한마디밖에 할말없을것입니다. 「고맙소」라고」

내가 고맙다고 하는데 왜 남들이 曰可曰否하느냐!

레이건豫算政策 큰難關

美의회 指導者들 승인싸고 批判的

【워싱턴25日聯合=聯】 美의회지도자들은 25일 연방예산을 1백30억달러 삭감하려는 레이건 대통령의 예산정책이 의회승인과정에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예산감축정책에 대해 의회지도자들이 이같이 비판적인 태도를보인 반면 도널드·리건재무장관과 데이비드·스토크맨예산국장은 레이건 대통령이 그의 연방예산감축목표에 미흡한 어떠한 법안에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결의로있다고 밝혀 예산감축안을 둘러싼행정부와 의회간의 줄다리기는상당한 진통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레이건 대통령은 24일밤30분간의 전국TV방송연설을 통해 오는84년까지 균형예산목표를 달성키위해 연방예산을 1백30억달러 삭감하고주로세수누락방지를 통해 30억달러의 세수증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의회와 월·스트리트증권가는 이날 대통령의 정책연설에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 다우·존스공업평균지수가 16.17포인트 하락하기도했다.

DC—10機 생산中斷할듯

레이건의 豫算감축조치로

【센트루이스25日聯合=聯】 세계 여객기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DC10機가 레이건美대통령의 최근 예산감축조치로 생산이 중단될지도 모른다고 이 여객기제작회사인 맥도널·더글러스社가 25일 말했다.

동사는 DC10機의 군용기종인 8대의 KC10機 생산주문을 폐지시키려는 레이건 대통령의계획에따라 DC10機의 계속적인생산이위협을 받게될것이라고 강조했다.

對臺灣政策 구체화조짐

中共、10월9일 重大發表

中國統一위한 새攻勢펼듯

【北京25日聯合=聯】 중공관리들은 北京주재 외교관들에게 오는10월9일 모종의 중대발표가 있을것이라고 예고했으며 北京외교가에서는 중대발표의 내용이 대만에 대한 중공의 새로운 평화공세와 관련된 그간의 추측들을 구체화시킨 것이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10월9일은 중국의 마지막왕조인 淸朝가 무너진 1911년의 辛亥혁명 70주년기념일 前夜로 중공당국은 오래전부터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준비해 왔다.

雙十節로 알려진 10월10일은 대만정부의 국경일이기도 한데 北京당국이 雙十節기념행사를 이용, 중국의 통일을 위한 새로운 공세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조짐이 크게 엿보이고 있다.

외교소식통들은 25일 한중공지도자에 의해 중대발표가 있을것이라는 통보가 北京의 외국공관들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北京당국의 평화통일공세에 관한 추측은 중공이 일부 권력구조를 대만당국과 共有하는 방안을 고려할수도 있다는 중공실력자 鄧小平의 발언이 홍콩신문들에 보도된이후 더욱 관심을 [illegible] 있으나 중공당국의 공식발표는 아직없었다.

共産主義 포기전엔 어떠한 접촉도안해

駐韓自由中國대사

【서울26日聯合】 駐韓중화민국대사관은 26일 「중공은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중화민국의 國體를 충실히 존중한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기전에는 중공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최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紙가 보도한 「자유중국이 中共에 협상조건을 제시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한것이라고 밝혔다.

蘇·이外相會談 6년만에 처음

【유엔본부·텔아비브25日AP=聯】 안드레이·그로미코소련外相과 이츠하크·샤미르이스라엘외상은 지난 75년이래 6년만에 처음으로 유엔주재 소련대표부에서 양국간 고위회담을 갖고 ①中東에관한양국의 외교정책 ②在蘇유태인및 양심범문제 ③기타쌍무문제를 논의했다고 예후다·블룸 유엔주재 이스라엘대사가 25일 밝혔다.

特別交易區로

天津·上海등도 開發가속화

【홍콩25日聯合=聯】 중공당국은 경제개발 가속화방안의 일환으로 廣州·深圳에이어 天津·上海·北京등 대도시들도 단계적으로 특별교역지구로 지정할것을 현재 계획중이라고 25일 홍콩의 사우드·차이나·모닝·포스트紙가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中共당국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 중공당국은 먼저 天津에 특별경제구역제도를 적용하는데 따른 세부사항을 현재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天津市의 개발이 廣州등과 꼭같지는 않을것이나 中共특별계획경제정책의 先頭走者인 廣東省의 廣州·深圳의 모델과 비슷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부토死刑에 報復잇달아

파키스탄 푼잡州에 또테러

【라호르(파키스탄)25日AP=聯】 일단의 무장괴한들이 25일 파키스탄 푼잡州의수도라호르에서 故줄피카르·알리·부토前수상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무시타크·후사인前라호르고등법원부장판사와 차우드리·자후르·엘라이前노동상이 동승한 승용차에 수류탄을 퍼부어 엘라이前노동상이 사망하고 후사인前판사는 부상했다.

파키스탄정부 통제하의 APP통신은 이날 무장괴한들이 탑승한차가 지나가면서 엘라이 前노동상의 승용차를습격했으며 엘라이 前노동상과 함께 운전사도 사망했다고전했다.

蘇·시리아합동훈련

【니코시아 (키프로스) 25日AP=聯】 시리아와 소련은 소련육·해·공3군의 시리아상륙을 포함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파리에 본사를 둔 아랍系주간지 알·모스타크발이 보도했다.

次期 유엔事務총장 탄자니아外相 추대

非同盟國그룹

【유엔본부25日聯合=聯】 유엔의 비동맹그룹국가들은 25일밤 차기유엔사무총장후보로 살림·탄자니아외상(39)을 추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말했다.

소식통들은 살림후보의 단일추대안을 모하메드·베드자오이 알제리대표단장이 제안했다고 밝히고 이 제안은 지난6월 나이로비 정상회담에서 살림 탄자니아외상을 차기 유엔사무총장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한 아프리카단결기구 (OAU)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아랍연맹의 지지도 얻어냈다고 말했다.

◇蘇製장갑차 노획한 아프간反政府軍 아프가니스탄반도들이 파키스탄국경근처 알라지르가에서 노획한 소련제 장갑차를 살펴보고있다. 『알라신은 위대하다』라는 아프간반도들의 슬로건을 외치고있는 한반도의 모습이보인다. 【알라지르가 (아프가니스탄) 24日AP=聯】

「살얼음」밟고가는 波勞組

自由勞組 1차全國大會 2단계會議배경

勞組"革命主體"宣言등 強硬 政府 經營權 인정…一步후퇴

蘇위협속 最惡사태막으려 共感帶형성

國際焦點

폴란드자유노조 (솔리다르노스크)는 제1차 전국대회 2단계회의 (본회의)를 26일부터 10월3일까지 그다니스크에서 갖는다.

이번 본회의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동안 열렸던 1단계회의 (예비회의) 의 연장이다.

예비회의에서는 ▲자유노조가 단순한 폴란드의 경제세력이 아니라 앞으로 폴란드혁명을 이끌어나갈 「혁명주체세력」임을 천명했고 ▲노동자에게 自律경영권을 보장한 노동법개정을 요구, 폴란드경제의 근본개혁을 요구했고 ▲레흐·바웬사를 頂點으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통치방식을 채택, 조직강화를 시도하는가하면 ▲東歐노동자에게 자유노조결성을 촉구, 폴란드혁명수출을 시도하는등 획기적사항들이 결정되었다.

특히 자유노조가 정권담당세력이 될수도 있다는 「혁명주체세력 선언」과 他공산국 노동자에게 자유노조 결성을 촉구한 결의사항은 크렘린과 폴란드 現지도층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폴란드공산당은 자유노조가 정권을 넘보는 정치세력이 되기전에 제동을걸 필요를 느꼈고 크렘린은 「폴란드病」의 東歐확산을 우선 막아야 했다.

소련은 지난 18일 최후통첩의 성격을 띤 경고서한을 카니아 黨제1서기와 야루젤스키수상에게 보냈음을 발표했고 야루젤스키도 24일 노동자에게 자유노조 결성을 촉구한 결의사항은 크렘린 反蘇행동에 특수군을 동원하겠다는 경고를 했다.

[illegible]

【李炳圭기자】

메아리

외로운 圖書館

독서주간이되면 으레 따라붙는 문제점이있다. 도서관의 양과 질적인 빈곤이다. 국민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되었다.

도서관법이 규정한 도서관의 정의는 대체로 이렇다. 「도서, 기록, 시청각자료, 행정과 향토자료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이 이용토록 한다. 또한 조사, 연구, 학술, 교양, 레크리에이션과 사회교육에 이바지 한다」

이개념과 정의는 벌써 시대에 뒤떨어져졌다. 선진국에서 이미 각종정보와 자료정리 이외에도생활정보까지 제공하는 기능을 맡고있다. 물가시세나 기차시간까지 알려준다. 도서관이 현대 보관소쯤으로 인식된 우리현실에선 얼핏 신기하게 들릴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정보은행」이 추진된것을 생각하면 현대도서관의 기능은 획기적으로 변하고있음을 알수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의강화와 기능강화를 위해 도서관법의 개정을 건의하고있다한다. 우리의 「낙후현상」은 일본과의 비교에서 잘 드러난다. 일본도서관을 돌아본 한 전문가의 보고를 보면 답답함을 넘어 새삼 부끄럽기까지하다.

東京에만 지금 2백60개의 都立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東京都立도서관은 히비야(日比谷)별관까지 합쳐 건평이 9천여평—. 이것은 서울의 5개시립도서관을 합한 시설규모와 같다. 장서량도 2배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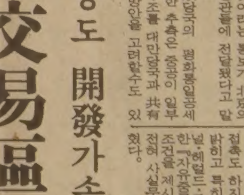
이 도서관은 일반적인 기능과 아울러 상하 2백여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센터로서 조사활동에 중점을 둔다. 아동열람실과 시청각교실도 운영한다. 그밖에 중소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이다.

인구 8백50만명에 겨우 8개의 도서관뿐인서울과는 엄청난 대조를 보여 그 심각성이 뼈저리게 느껴진다. 인구 5만에 1개꼴인 東京과숫적으로나마 비슷해 지자면 서울엔 앞으로 1백40여개이상의 도서관이 세워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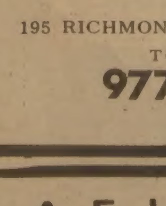
지나치게 도서관의 규모만을 생각할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드나들수 있게 곳곳에 소규모의 도서관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진다. 관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시설을 늘려가야 독서인구도 증가할것이다. 오늘의 우리 도서관은 너무 외롭다.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 ~ 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 ~ 2 : 00AM
(금. 토. 일 — 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절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 ~ 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 ~ 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입)
★평일 오후3시 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IOC와 한국 <3>

KOC法統옹호에 앞장
보스톤마라톤制覇가 加入촉진제

스톡홀름 총회서 한국의 IOC 가입이 결정되었을 당시 브런디지씨는 IOC의 부위원장이었고, IOC내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었다. 브런디지씨가 어떤 동기로 한국의 IOC가입을 적극 주선했는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브런디지씨같은 실력자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의 올림픽 출전은 상당기간 늦어졌을지 모른다고 광복후 스포츠계에 종사했던 체육인들은 말하고있다.

스톡홀름총회 두달 앞서 우리나라의 徐潤福선수가 美國 보스턴 마라톤대회서 우승을 차지한 감격적사건이 있었다. 독립의 기쁨에

브런디지委員長의 공로

들떠있던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더해준 쾌보였다. 孫基禎씨는 보스턴 마라톤우승이 한국의 IOC가입에 촉진제구실을 했다고 풀이했다. 보스턴마라톤제패후 徐선수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한 祝勝파티가 뉴욕서베풀어졌다. 이자리에는 시카고에있던 브런디지씨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스톡홀름 IOC총회 준비관계로 참석하지못했고 대신측근인사를 파티장에 보내 『한국이 런던올림픽에 출전할수있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뜻을 전했다는것.

52년 IOC위원장에 피선된 브런디지씨는 72년 그가 위원장직을 버릴때까지 한국의 현실에 깊은 이해를 갖고 한국을 도와주려는자세로 노력했으며 李起鵬 李相佰 張基榮씨등 우리나라 IOC위원들을 IOC무대에 데뷔 시키는데 큰 일을 했다. 특히 국제스포츠무대서 북한의 공세가 치열했던 격동기(67～72년)에 IOC위원의 중책을 맡았던 張基榮씨와는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어려운 매듭들을 풀어나갔으며 많은 일화를 남겼다.

47년 IOC가입을 계기로해서 국내 각 경기단체는 국제무대에 진출하기시작했다. 육상을 시작으로 하여 복싱·역도·농구·수영·빙상·축구·레슬링등의 경기단체가 48년말까지 국제연맹에 가입했고 6·25동란의 혼란기를거쳐 1960년 이전에 탁구·승마·사격·배구·하키·체조·스키·유도·테니스종목도 국제연맹가입을 마쳤다.

북한이 맹렬하게 정치선전공세를 펼치며 국제스포츠무대에 머리를 내민것은 55～56년. 북한은 제47차 IOC총회 (52년·헬싱키) 때 IOC에가입하려고 획책하다가 실패했고 제52차총회 (56년·멜번) 때에는 가입문제가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결당했다. 당황한 북한은 蘇聯을 등에업고 57년 불가리아 소피아서열린 제53차 IOC총회때 한반도의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북한NOC의 설치를 잠정 인정받았는데 조건부로 올림픽대회에 참가할때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 (KOC)의 동의를 얻어서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토록 했다.

59차IOC총회(62년 모스크바)의 의결에따라 64년 東京 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를 놓고 3차에걸친 회담을했으나 북한측의 방해 공작으로 깨지고 말았으며 이 문제는 현재도 국제스포츠계의 관심사로 남아있다.

◇59년 5월 西獨 뮌헨서열린 제55차IOC 총회모습。

한국과 IOC의 관계는 크게보면 국제스포츠 무대서의 남북한관계가 중심을 이루고있다。한국스포츠의 국제경쟁력과 지위가 차츰 향상되자 이를 의식한 북한은 스포츠를 그들의 정치선전을위한 수단으로 적극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뚜렷이했다.

그들은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승인받은 한국의 기존질서를 파괴하려고 공산권의 IOC위원들과 잦은 접촉을 시도했고 올림픽대표권문제、호칭문제등에서 사리에맞지않는 주장으로 일관했다。이런 상황이었으므로 우리나라 IOC위원들은 마치 전쟁을 하는 기분으로 뛰면서 우리의이익을 찾아야했다。

1955년5월 IOC 브런디지 위원장이 KOC 李起鵬위원장의 초청으로 내한했고 다음달 파리서열린 IOC총회에서 李起鵬씨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IOC위원이 되었다。

그러나 李起鵬씨는 국내정치의 몰락에휩쓸려 IOC위원으로서는 이렇다할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55년6월부터 60년4월까지의 재임기간중 거의 IOC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그의 IOC활동은 명예의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金在爽기자】

트뤼도首相 訪韓계기로본 韓·加관계

環太平洋시대 共同認識 다져

北美 제2巨人맞아 「精神結束」강화 될듯

양국 經濟的接合이 討議촛점
한국、石油등 막강한資源에 關心
加선 原子爐 商談이 알려진秘密

트뤼도수상의 이번 訪韓은 지난2월 全斗煥 대통령과 레이건 美대통령간에 가진 頂上회담에 이어 정부가 北美의「第2의巨人」을 상대로한 두번째 首腦외교라는 점에서 큰의의를 찾을수 있다.

더구나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태평양연안의 強國이자 소련을 假想敵으로삼는 NATO(北大西洋조약기구)회원국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번 訪韓은 정부가 80년대를 목표로 發進시킬「環太平洋시대」의 開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영토면에서 소련에이어 세계 제2의大國이다. 南韓땅의 1백倍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는 석유、석탄、철광、삼림、천연가스、오일샌드、우라늄등으로 가득하다。開途國모두가 탐을내는 막강한資源보유국이며 특히 수출시장의 多邊化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캐나다는 우리의관심을 끌고있는 큰 시장이다.

캐나다는 또 6·25당시 參戰、5백16명의 희생자를 낸盟邦이자 현재 이지역에 살고있는 우리 僑民수만도 5만명을 상회、일본 미국에이어 제3위의 移民진출국 이기도하다.

韓·캐나다양국관계의 시작은 49년 제1공화국에대한 캐나다의 공식承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양국민간의 정신적 對話는 이보다 훨씬 앞선 日帝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특히 게일、스코필드박사등 캐나다출신선교사가 舊韓末과 19세기초에 이땅에 남긴 遺業은 한국지식인의 의식속에 여지껏 남아있다。게일선교사는 한국최초로 新·舊約성서의 韓譯과「한국인의 歷史」등의 著書를 남기기도했다。

트뤼도수상의 이번訪韓은 양국간의 이러한 정신적紐帶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새로운차원의 韓·캐나다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것같다。

그러나 캐나다쪽으로 볼때 트뤼도수상의 이번訪韓은 양국간의 단순한 정신적結束을 넘어서고 있는것같다。

캐나다는 캐나다대로 한국市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봐야할것이다。

韓·캐나다양국간의 交易量은 금년의 경우 약10억달러線에 육박할것으로 예상된다。이 액수는 79년의 7억2천만달러、80년의 6억달러線보다는 30～40% 伸張勢를 보이지만 캐나다 전체의 수출입량에 비하면 0.6%의 占有率밖엔 안된다。캐나다의 對外수출입의존도(80년)를 보면 미국이 70%、일본이 8%、英國이 5%線이며 동남아지역의 경우 한국產品의점유율(0.6%)은 臺灣이나 홍콩에도 뒤떨어지고있는 실정이다。

과중한 對美依存度를 줄이려는 캐나다側의 노력과 對캐나다交易에 있어 동남아下位圈을 벗어나려는 한국의 노력이 이번 트뤼도수상의 訪韓을 계기로 어떤형태、어떤 규모로 接合될지 관심을 모으고있다。

트뤼도수상의 訪韓에 관해 한 外信은 캐나다產 原子爐의 對韓추가판매를 하나의 가능성으로제시했다。

캐나다는 지난76년 국내原子爐「月城1號」의 發注에 應札、6억7천만달러로 受注계약을 맺은바있다。물론 정부차원이 아닌、캐나다AECL社(캔두型)와 우리의 韓電간에 체결된 계약에 불과하지만 아무튼 캐나다는 美(웨스팅하우스)佛(프라마톰)과 함께 原子爐對韓판매에 관한「列強3개국」대열에 낀것만은 분명하다。

정부는 5차5개년 계획이 끝나는 86년에 이르면 현재 가동중인 古里1號를 포함、모두 6基의 原子爐를 완전가동할수있게된다。

또 이 숫자는 2천년에 이르면 모두 20基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트뤼도수상의 이번 訪韓은 따라서 추가로 늘어날 14基속에 캐나다產 캔두型을 어떻게 해서든지 포함시키려는 외교활동의 하나라는것이 알려진「비밀」이 되고있다。

아뭏든 이번 트뤼도수상의 訪韓은 양국간 전통적 우호의재확인은 물론 經濟등 各분야에걸친 새로운協力을구체화하는계기가될것으로 전망된다。 【金勝雄기자】

◇트뤼도수상의 출생지인 퀘벡州의 몬트리얼市 全景。

트뤼도、「規定지을수없는」個性派정치인

옳은일엔 政治妥協 안해
法律전공…金錢관계 철저

27일 訪韓하는 트뤼도수상은 한마디로 감정과 제스처가 풍부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個性派정치인。장례식에 가서 눈물을 터뜨리는가 하면 불꽃처럼 터뜨리는 天才性과 奇癖으로 西方정치인들간에는「規定지을수없는」성격의 소유자로 통한다。

트뤼도수상은 또한번 옳다고 확신하면 결코 妥協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해서도 언제나 거리감을 유지、쉽게 접근할 기회를주지않는다。

우수하지 못한사람을 비웃는「거만」이 있는가 하면 金錢문제에도 무척 까다롭다는것이 定評。추운겨울 식당에 들러도 팁을 節約하기위해 코트를 걸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청년시절 친구를 위해 3천달러의巨金을 喜捨하는가 하면 마음이 통하는 知己에게는 각별한人情을 쏟기도 한다。

트뤼도수상은 1919년 10월 퀘벡州의 몬트리얼에서 태어났다。소년시절의 트뤼도수상은 고집세고 싸움을 잘하는 학생으로 통했다。자신의 약한신체조건을 극복하기위해 복싱、하이킹、스키、수영、카누등 모든 스포츠에 열중했으며、이러한 습관은 壯年이 되어서도 지속、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늘 자신을 훈련시키는 타입으로 굳혀졌다。

몬트리얼大에서 법률을 전공후 파리의 政治大學、런던의 스쿨·오브·이코노믹스에서 법률·정치·경제를 연구했다。

61년 母校인 몬트리얼大에서 법률학교수로 4년동안 在職하다가 65년 下院의원에 당선되어 政街에 첫발을 들였다。그후 법무장관(67년) 自由黨당수(68년)를 거쳐 캐나다수상에 취임、11년동안 在任했으며 80년3월 自由黨의 得勢로 재취임、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의 家系는 1659년 프랑스 라·로셸에서 木手業을 하다 캐나다로 移住한 에티엔느·트뤼도氏에게서 비롯되는데 부친 찰즈·트뤼도는 정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품의 변호사로 상당한 재산을모았으나 도박과 운동을 즐겨 트뤼도수상이 14세때 肺炎으로 죽었다。트뤼도수상이 장례식때마다 눈물을 터뜨리는 것은 당시의 충격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또 상당한 讀書狂으로、수상職을 在任하는 동안에도 책을 놓은 적이 없다。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하오9시45분이후에는 그를 만날수가 없으며 심지어 승용차운전사마저 이어폰을 끼고 라디오를 청취해야 하는등、讀書 분위기 조성에 신경을 써야 할 정도다。

가톨릭을 신봉해왔으나 고교시절부터 敎理를절대적으로신봉하지는 않고 다만 敎會제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을보인다。69년 敎皇접견후 받은 감명으로 비행기안에서 꼬박 밤을새운 逸話도있다。그의 結婚觀은 拘束을 싫어하는 성품으로 71년 마거리트女史와 결혼할때까지 美女優바브라·스트라이젠드등과 많은 염문을 남기도했다。마거리트 女史와의別居는 그녀의 나르시즘과 트뤼도수상의 에고이즘탓으로 풀이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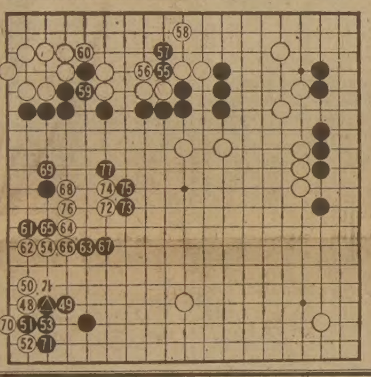
그의 政治觀은 이따금 과격한 성향을 띠며 특히 퀘벡州 분리주의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발동한 70년의 戰時措置法(war measures act)은 한좋은例가 된다。

이번 訪韓에 앞서 트뤼도수상은 한국文化의 眞髓를 몸소접할 기회를요청、駐韓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秘苑옆 E旅館에 民泊할뜻을 비치기도했으나 保安문제로 초청측에서 완곡히거절했다는 後聞도 있다。 【金勝雄기자】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4局 第4譜 48～77 (갈5시간 덤5집반)

白(4段) 鄭壽鉉〈1敗〉
黑(6段) 徐能旭〈1敗〉



黑軍、쌈지를 뜨다

좌하귀 黑의 日字굳힘에 白48로 붙였을때의 응수는 여러가지가 있다。「가」쪽 혹은 53쪽을 그냥늘어두는 형、또50쪽 혹은51쪽을 젖혀막는 형이 대표적인것인데 물론 그취사 선택은 주의환경에 따라 결정짓게 되는것으로서 여기다 일일이 그예를 제시할 여백이없다。다만 일반적으로 간단한 것을 소개하면 참고도처럼 △표를 黑1로막고 白2、黑3、白4로 가볍게 처리하는 형이 가장 평이하여 자주 나타나고있다。

이바둑에서 黑이49로 늘어둔것은특수한 응수로서 이결과는 먼저 黑49가 두어진곳에 白이48로 달려왔을때 ▲표로 치받은것과 마찬가지인 점에 유의할일이다。

어쩌면 徐6단은 白이 48에서 50이하로 움직이게되면 상측에 형성된 黑세를 배경삼아 이白을 키워서 잡을작전이 아닐까。

이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黑51、53이 출중격의 출발점이고 상변에 공연한 손찌검같은 黑55、57은 실상 黑59를 선수로두어 白의 진로를 철저히 막으려는 수단。

이리하여 黑61이하로 노골적인 공격을 개시하게 되었다。鄭4단은『白62로 67자리에 가볍게 탈출해야 되었다』며 못내 후회했다。공연히 62로 막는 바람에 쌈지를 뜨게되어서는 말이나다는 것이다。

黑73、75로 계속밀어 붙이면서『이거 억지춘향같은데』하는 徐6단。그렇지만 계속 黑77로 젖히고보니 좌변 白은 生死문제를 떠나 우선 철저히 당하고있는 꼴이다。

北一 8회서 回生

3點뺏기고도 逆轉

黃金사자기 高校야구

제35회 황금사자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가 26일 22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서 개막、첫경기서 信一高가 全州高를 9-2 8회콜드게임으로 물리치고 서전을 장식했다。

대통령盃 우승팀 群山商高를 누르고 全北대표로 출전한 全州高는 1회초 공격이 시작되자 선두타자 白宰宇가 信一高의 에이스 李戴弘을 강타、우월 솔로호머를 날리며 기세를 올렸으나 주전투수인 金大鉉의 손가락부상으로 2회부터 信一반격에 얻어맞기 시작、대패했다。

北一高는 8회초 2死만루에서 눈부신 기동력으로 트리플스틸(3重도루)로 결승점을 올리는등 7、8、9회에 2점씩을 빼앗아 中央高에 6-3으로 역전승했다。

中央은 3회말 선두9번李承權이 3루앞내야안타를 치고 2盜、1번盧承玖가 또다시 3루앞 내야안타를 때리고 2盜、2번曺在煥의 포볼로 만루를 이룬후 3번朴相益이 투스트라잌후 과감한 스퀴즈플레이를 시도하여 선제점을 올렸고 후속방봉과 金珠烈의 좌전적시타로 3점을 선취했다。

北一은 中央의 선발 李鍾隆에게 6회까지 산발 2안타로 눌리다가 7회초 선두3번 金相國의 중월2루타、4번 李康昊의 우월3루타、5번 尹洪植의 좌월2루타등 연속 3발의 장타로 2점을 만회했다。

◇첫날1회전

전주고	100	000	01	2
신일고	020	010	42	9

＜8회콜드게임＞
▲홈런=白宰宇(1회·전주)

북일고	000	000	222	6
중앙고	003	000	000	3

團長 崔勝軫위원장
亞洲사격 選手확정

사격연맹은 오는 10월15일부터 20일까지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3회 아시아여성및 청소년사격선수권대회에 파견할 韓國대표선수단을 崔勝軫연맹총무위원장을 선임하는등 20명의 선수단 (임원6·남2·여12) 을 26일 확정했다。

◇대표단 ▲단장=崔勝軫(공기총분과위원장) ▲회의대표=柳石妍(여성분과위원장) ▲감독=金基煥(지도단고문) ▲코치=丘圓燮(지도단훈련과장) 金重根(企銀) ▲섭외=柳文熙(企銀) ▲남자선수=朴大雲(第一銀) 徐寅澤(光云大) ▲여자선수=金榮美(韓一銀) 韓容順(住宅銀) 孫玉粉·金良子(이상企銀) 河米守(서울信託銀) 高英姬·夫辛姬(이상國民銀) 崔東實·金仁淑·柳美淑·金惠英·林敏子(이상지도단)

金南賢 우승
28회 아마골프

金南賢(재미동포)은 26일 富士컨트리클럽에서 막을 내린 제28회 한국아마골프선수권대회에서 2백99打로 우승을 차지했다。

재미동포15명、재일동포59명등 1백69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金南賢은 첫라운드부터 계속 선두를 지켜 이대회 첫 재미동포우승자가됐다。

준우승은 최종 4라운드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려 3백2打를 기록한 金洪洙가 차지했다。

◇최종전적 ①金南賢299(72-77-76-74) ②金洪洙302(79-76-75-72) ③朴萬龍302(76-74-74-78) ④趙範洙304(76-73-82-73) ⑤李憲305(79-78-73-75)

海外토픽

國旗 2개모두게양
★LA市 쌍십절 맞아

美로스앤젤레스시 평의회는 국무성과 톰·브래들리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10월10일의 중국 신해혁명기념일에 자유중국과 中共국기를 모두 게양하는「2개의 국기정책」을 채택했다。

시평의회는 최근 이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을벌인끝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정부는 中共이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청사앞에 자유중국국기도 중공기와함께 달기로하는 결정을 9대4로채택했다。【로스앤젤레스=UPI】

난처한 말고기事件
★濠洲사절파견 또 발생

이른바 말고기와 캥거루고기수출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호주정부는 쇠고기수출국으로서의 명성을 되살리기위해 피터·닉슨1차산업상을 미국·캐나다·영국·일본등 주요 쇠고기수입국에 파견、호주가 안전한 쇠고기수출을위해 앞으로 취할 새로운 보안조처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24일 호주를 떠난 닉슨1차산업상은 15일동안 이들4개국을 순방하면서 수출쇠고기에 대한 검사방법개선、그리고 포장및 수송차량과 컨테이너의 새로운 봉인、도축장에대한 보안감시강화등 호주정부의 안전수출노력을 설명할 예정인데 그러나 그의 순방계획이 발표된 바로23일 또다시 수출용 쇠고기상자에서 말고기가 발견돼 호주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것。【캔버라=美】

流星의 賦 <193>

李炳注作 李友範畵

明暗 ⑬

홍계남은 그 얘기를 듣고 짙은 감동을 받았다。예삿일 같으면서도 결코 예삿일로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달갑지 않은 물건을 받았을 때、그냥 그것을 도루 돌려주는 것은 용이한 일이다。그냥 받아 놓는 것도 간단한 일이다。그러나 이순신은 간단하게 그일을 처리하기엔 너무나 마음이 깊었다。

그것이 뇌물이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엔 물론 무슨 주저가 있을 까닭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단정하지 못할 경우를 당해 이순신은 망설이게 된 것이리라。그 이유의 하나는、어줍잖은 것이니까 간단히 돌려 보냄으로써 청백(淸白)한 체 한다는 내음을 풍길 수 있으리란 염려였고、또 하나는 인정을 인정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졸장부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염려였다。

그 물건을 집에 둘 수 없다는 이유엔 만일 그것이 뇌물이었다고 가정할 때 끝끝 불쾌감이 남을 것이란 염려가 있었다。그래 그 물건을 부하에게 주어버린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감정을 일소하게 되는 것이다。

홍계남은 단 한가지 그 얘기에 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다。정과 의리를 고루 행하고 사는 인생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정과 위(威)를 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떳떳한 일인가。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하다。세상은 너무나 험하다。박빙여리(薄氷如履)하는 경각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정과 의리를 다할수 있을까。정과 위를 겸행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홍계남은 숙랑에게 요즘있었던 일에 곁들어 그의 복잡한 심정을 말했다。숙랑은 주의깊게 말을 듣고 있더니 종이를 펴고 다음과 같은 뜻의 글을 썼다。

『음지에서 사는 소녀에게 어찌 양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이렇다 저렇다할 소견이 있겠읍니까만 여인지교(與人之交)에 사단(事端)이 있고、그사단으로 인하여 화(禍)가 생긴다는 것은 대강 짐작할수가 있소이다。그러나 화를 피하기만 하고 살려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옵니다。귀불(歸佛)의 길도 있사옵고、습선(習仙)의 길도 있사옵고、세상을 염리(厭離)하고 산곡에서 초부(樵夫)의 노릇을 하는 것도、귀전(歸田)하여 청경우독(晴耕雨讀)하는 길도 있사옵니다。그러하오니 당신께서 기어 화가 겁이 난다면 오빠와 의논하여 전리(田里)로 돌아감이 어떠하올지』

계남이 웃으며 답했다。

『낭자께서 전리의 사정을 몰라 하는 말이오。전리에 살려면 간악한 소리(小吏) 때문에 편할 날이 없소이다。게다가 가렴과 주구는 어떠하구요。더우기 요즘과 같이 물정이 소연한 시국엔 쌀을 내라、베를 내라、병정을 내라、하여 그것에 대한 응수만으로도 심신이 피곤할 지경입니다。하물며 나와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당해낼 방도가 없소이다』

숙랑이 보일까 말까한 웃음을 띠고 다음과 같이 썼다。

『불사장부언(不似丈夫言)』

『미안하외다』

계남이 얼굴을 붉혔다。

숙랑이 다시 다음과 같이 썼다。

『수야암풍열(雖夜暗風烈) 가기청명일(可期淸明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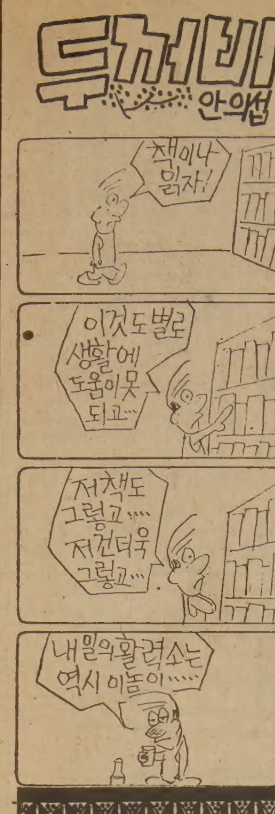
재 카나다 한인친선 탁구대회

장 소 : 994 Carlaw Ave.(West Wood JR. High School) (CARLAW AVE. & WEST WOOD AVE.)
시 일 : 1981년10월10일(토) 오전9 : 30
참가자격 : 토론토거주 교민
경기종목및 참가비 :
단체전(4단1복) $20.00
남녀개인전 $ 3.00
개인복식 $ 5.00
시 상 : 단체전 : 우승, 준우승
개인남녀 : 1, 2, 3등
개인복식 : 우승, 준우승, 3등
연 락 처 : 회장 정영모(922—9435)
총무 김동천(243—0522)
주 최 : 재 카나다 한인탁구협회
후 원 : 한국일보 · 코리안저널 · 대한체육회 · 캐나다지부 · 아세아선물센타 · 미도파선물센타 · 킹스카메라 · 거북이선물센타

재 카나다 한인 탁구협회 회장 정 영 모

BB THE BESTSELLERS MILLION$ 1,000,000 BB
TARSANDS본고장 꿈 ALSANDS본고장
OIL붐TOWN FORT McMURRAY
A & W DRIVE-IN RESTAURANT FOR SALE
대지, 건물및 사업체 일절
영업시간 : 11AM～11PM SEATING : 없 음
금년매상 : $1,000,000.00돌파예상(지난5년간 A & W전 캐나다 매상1위)
위 치 : FORT McMURRAY시내중심가 코너(장차 금싸라기 땅)
EXCLUSIVE LISTING OF BLOCK BROS (EDMONTON)
문의는 김 장 환 에게
(403) 454—3217, 452—7950 (JAY KIM)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男便죽자 新婚20代부인 投身자살

호텔17층서 親舊불러 새벽까지 追憶談후

同鄕부부 공무원남편 硏修中 축구하다사망

◇1년전에 찍은 崔씨부부의 결혼식사진。崔씨는 20대 젊은나이로 숨진 남편의 뒤를따라 삶을 청산해 버렸다.

◇崔씨가 17층에서 몸을던져 자살한 瑞麟호텔현장。

행정고시에 합격한 남편이 축구시합중 사망하자 이를비관한 신혼의20대부인이 1주일후 호텔방에서 투신, 남편의 뒤를 따랐다.

26일 새벽1시45분께 서울 鍾路區瑞麟洞149 瑞麟호텔1703호실에서 崔妊淸씨(28·여·서울冠岳區新林9洞251의167)가 창문을열고 50여m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崔씨는 전날 하오7시20분께 중·고교 동창생인 金泰信씨(29·대한교육보험의무실간호원)와 함께 투숙, 지난19일 숨진 남편 成書虎씨(32·충북도청법무담당관실송무계장)의 생전의 추억담과 장례식 얘기등을 나누다 친구 金씨에게『피곤하니 먼저 자겠다』고 말한뒤 갑자기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것.

金씨에 의하면 崔씨는 25일 하오3시께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목욕을 다녀왔다』면서 젖은 세탁물과 무신을 맡겨두고 구두를 빌어신고 나갔는데 하오5시께 다시만나 호텔에 함께 투숙했다는 것.

崔씨는 金씨와함께 있는동안『남편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다니. 괴로와 죽고싶다』는등의 말을했는데 崔씨는 호텔방에서 金씨와 함께 얘기를나누다가 새벽1시가 넘도록 괴로와하면서『나이트클럽에 가서 술이나 마시자』며 함께 18층 나이트클럽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崔씨는 술을시킨뒤 마시지않고 방으로 내려가버렸고 뒤따라내려온 金씨와함께 소파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사고가 생겼다.

숨진崔씨의남편 成씨는 서울大정치학과를졸업, 78년행정고시에 합격한뒤 충북도청에 근무해왔는데 지난7월6일부터 外國語大부설 외국어생활관에서 교육을 받아오던중 지난18일 하오4시30분께 外國語大 운동장에서 동료들과 축구시합을하다가 쓰러져 慶熙의료원에 옮겼으나 19일하오7시30분 숨졌다.

崔씨는 고향인 충북槐山에서 중·고교를 마치고 淸州에 있는 淸州간호전문大를 73년에 졸업했고 1년전 같은동네에서 큰 成씨와 결혼했다.

가족들에의하면 崔씨는 지난21일 남편成씨의 장례식을 치른 이후부터 방문을 걸어잠근채 식음을 전폐해오다 24일 서울東大門區中和洞 친척집에 다녀온다며 나간뒤 소식이 없어 찾고 있던 중이었다.

修學여행

갈수도… 안갈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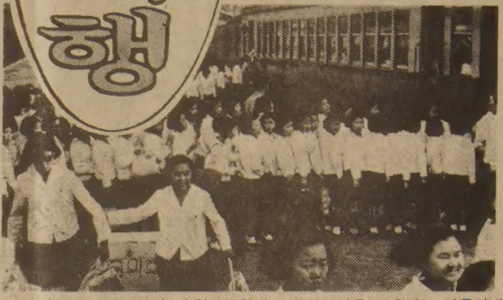
敎委 "列車만 이용·經費 19,460원" 못박아

制約에 묶여 산敎育 포기늘어

「毛山악몽」脫皮…自律化 바람직

學父兄·교사들은 "學校재량에 맡겨라"

慶州로만 몰려… 現場교육 보다 고생길


◇당국의 비현실적인 수학여행규제로 열차편만을 이용하는 서울시내 중·고교생은 완행열차에 시달려 목적지에 도착하기도전에 지쳐버려 산교육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있다.

수학여행철이 왔지만 올해도 중·고교에서는 여행을 가야할지 가지말아야할지를 결정하지못하고 망설이고있다.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 학업의 연장인 현장교육이라는점에서 장려할 일이지만 시교육위원회가 교통편, 여비, 일정등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있어 이를 따르다보면 수학여행을 가기가 어렵기만 하다는것. 학교외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이제 우리사회도 크게성장해 있으니 소극적이기만한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날때가 되었다고 지적, 수학여행을 자율화 시킬때가 됐다고 권고하고있다.

서울시교위의 경우 수학여행은 꼭 기차를 이용해야하고 경비는 3박4일에 1만9천4백60원을 받아야만 한다고 못박고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목적지를 필요한곳으로 정할수도없고 적당한곳에 현실적으로 수학여행을 간다 해도 현실에맞지않게 터없이 낮게책정된 여비때문에 교통과 숙식문제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있다.

심지어 일부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현실적인 제약때문에 수학여행을 아예폐해 버리기도했다.

또 상당수 학교에서는 이같은 획일적인 당국의 규제를풀어 학교재량에 맡기지않으면 앞으로 수학여행을 포기해버릴 움직임을 보이고있을뿐아니라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도『무엇을 보고배웠는지 여행의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있어 안타깝다.

당국이 교통사고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버스를이용하지못하게하고 기차편만 이용하도록 했기때문에 모든학교가 교통편이 비교적좋은 慶州만을 택하게되는 경향까지 생겼다.

대부분의 학교가 수학여행을 봄 아니면 가을철에 실시하기때문에 수학여행 철만되면 慶州에는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교통·숙식등에 큰불편을 겪게돼 수학(修學)여행아닌 고학(苦學)여행이 되게마련이어서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까지도 지치고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E여고, K고등 몇몇 학교에서는 ▲현장교육 ▲학교생활에서 움츠려있던 학생들의 다른일면을 보게되는등 수학여행의 교육효과를 알고있으면서도 그것보다는 잃는것이더 많다고 판단, 수학여행을 없애버렸다.

이들학교에서는 입학식을 하면서 학부모·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의 부작용을 낱낱이 설명, 여행을 폐지한 동기를 밝히고있다.

또 현실에 맞지않게 책정된 낮은 경비때문에 완행열차를타는데다 비좁은 여관방에 20~30명씩 마구잡이로합숙을 시켜 새우잠을 자게하고있어 낮에 고적지를 찾을때는 버스에앉아 졸거나 건성으로보고 말게된다는것.

이런 이유들로 일선학교에서는 시교위가 버스를 이용못하게하는것은 무사안일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되고있다고 지적하고 버스편을이용한다고 사고가 난다는법도 없지만 기차를 이용한다고해서 사고가 나지 말라는법도 없지 않느냐고 반발하고있다.

시교위는 지난70년 京畿중학생들이 버스를타고 여행을갔다가 毛山건널목사고로 희생자가 많이난이후 버스를이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있는데 학교관계자들은 교통사고가 두려우면 아예 수학여행을없애는것이 더안전하지않느냐고 반발하고있다.

새마을·우등列車

京釜線등 觀光客·장거리승객 위해 칸막이 列車연결 運行

철도청은 26일 관광객이나 장거리 승객을 위해 京釜線과 慶州線의 새마을 우등열차에 내년부터 1~2량씩의 컴파트(칸막이)객차를 연결, 운행키로했다.

이 컴파트열차는 구미 각국의 열차에서 오래전부터 운행해오는것으로, 철도청은 1개객차에 ▲4인실 7개 ▲2인실 3개 10개로 나누어 칸막이를 설치하고 그안에 소파, 테이블, 카페트 시설등을 갖출 예정이다. 요금은 아직 정해지지않았으나 침대칸보다 높게 책정될것으로 보인다.

闇달러商 歸家길 被襲

怪漢2명 벽돌로 머리쳐 重態

72년 犯人잡아 市民賞받은 50代女人

서울西界洞

◇피습받은鄭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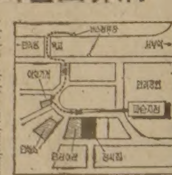
25일 하오7시30분께 서울 龍山區西界洞229의2 금강여관앞 골목길에서 괴한2명이 귀가중이던 암달러상 鄭貴鉉씨(55·서울 龍山區西界洞229의2)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실신시키고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났다.

鄭씨집에서 4m떨어진 곳에 사는 尹仁浩씨(47·여)에 의하면 이날하오7시20분께 문밖에서『쿵』하는 소리가 나 쪽문을 열고 내다보니 20대청년 2명이 상점인쇄소쪽으로 달아나는것을 보고 문을닫았는데 잠시후 주민들이 피를 흘린채 쓰러진 鄭씨를 발견했다는것.

가족들에 의해 세브란스병원에 옮겨진 鄭씨는 둔기로 오른쪽 귀뒷머리를 맞아 두부함몰골절상을 입어 긴급뇌수술을 받았다.

鄭씨가 피습당한 골목은 萬里路에서 40여m떨어진 폭3m의 골목길로 골목시장이 형성돼 평소엔 사람의 통행이 많으나 이날밤은 하오8시에 열린반상회 때문에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아 행인이 뜸했다.

鄭씨는 이날하오7시께 南大門시장에서 버스를타고 養正中高앞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육교를건너 골목에 들어섰다가 채 문을 닫지않은 朴明文씨(47·여)의 채소가게에서 배추1단을 사쥐고 20m떨어진 집으로가던중 변을 당했다.



장녀崔順伊양(25)은 鄭씨가 평소상오9시30분에 집을나가 하오7시30분께 돌아오는데 집근처가 어두운 골목이고 불량배가 많아 늦을때면 미리 전화로연락해 가족들이 마중나오게했으나 이날은 늦지않다는 연락이없어 마중나가지않았다고말했다.

한편 鄭씨는 최근 강도가 많다며 돈을 제일은행본점에 맡기거나 전대를만들어 허리에 차고다녔는데 범인들이 鄭씨의 거래장부와 화장품, 거래자명함등이 든 핸드백만을강탈, 전대에있던 한화 40여만원과 미화 6백달러는무사했다.

25년전부터 암달러상을 해온 鄭씨는 지난72년에도 서울中區會賢洞 오리엔탈호텔에서 개머리판없는 카빈총을 든 괴한으로부터 위협받았을때 총을 빼앗아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범인을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으며 西界洞239의11에 살때인 79년 1월5일에는 서울龍山區西界洞24 앞길에서 5명의 괴한에게 쇠파이프로 맞아 갖고있던 한화3백26만원과 미화4백달러를 털린일도있는데 범인들은 범행20일만에 서울南大門경찰서에 검거됐었다.

經口用 소아마비 백신먹고 구토 7개월 嬰兒숨져

昌原

【昌原=聯】생후 7개월된 어린아기가 보건소에서 나누어준 소아마비예방약을 먹은후 숨졌다.

경남昌原市大方洞731 宋奉根씨(30·회사원)의 3녀 宋華양(생후 7개월)이 25일상오10시30분께 국립보건연구원이 공급한 경구용회백소아마비 예방약(生)바이러스백신 0.3cc를 먹고 18시간뒤인 26일 새벽4시께 자기집 안방에서 숨졌다.

숨진 宋華양의 어머니 高淑여인(27)에 따르면 25일 상오 南山洞사무소에 예방접종을 받으러갔다가 宋華양이 감기를 앓고있어 DPT접종은 하지 않고 먹는소아마비 예방약 0.3cc만먹이고 돌아왔는데 이날저녁7시40분께 宋華양이 두차례구토를 한뒤 잠이들어 다음날인 26일 새벽4시께 젖을 먹이려고 宋華양을안아보니 숨져있었다는 것이다.

宋씨부부는 宋華양이 이날 하룻동안 어머니 젖과 소아마비 예방약 이외에는 먹은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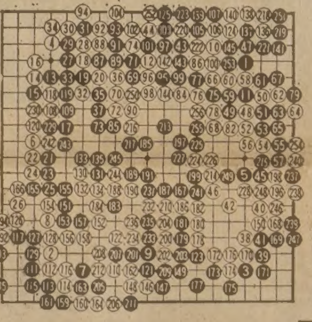
肢體부자유 給食費등 횡령 職業보도院長 구속

【春川=聯】춘천지검수사과는 20일 지체부자유자들을위한 급식비등 모두 5백70여만원을 가로챈 서울장안복지회춘천직업보도원장李清松씨(41·강원도춘성군신동면학곡리71의3)를 업무상배임혐의로구속했다.

검찰에따르면 李씨는 지난해10월중순부터 연말까지 도원의 시설확충사업을 하면서 춘천직업보도원공사 설계에서 1백85만원짜리 영수증을받아 25만원의 차액을 가로채는등 같은수법으로 모두 7회에걸쳐 5백여만원을 횡령했다는것.

趙名人, 가또 連破

名人位방어전, 3집半이겨 2連勝


◇제6기 名人戰 도전7번기 제2국 총보(1~256) 黑 名人 趙治勳9단 白 도전자 加藤正夫9단 〈제한시간 각9시간, 黑 5호반공제〉 ※80 83~50 81~62

【東京=宋孝彬특파원】趙治勳名人은 지난 24·25 양일간 東京에서 벌어진 제6기 名人戰도전7번기제2국에서 도전자 가또·마사오9단(加藤正夫)을 제압, 2연승을 거두었다.

趙名人은 이번 제2국에서 도전자 가또9단을 맞아 黑을 들고 선전, 2백56수만에 반면으로 9집을 남겨 덤5호반을 제하고 3집반을 이겼다.

이로써 趙名人은 남은 5국중 2국만 승리하면 名人位를 방어하게된다.

제3국은 오는10월 1·2 양일간 시즈오까겐(靜岡縣) 이즈나가오까(伊豆長岡)에서 열린다.

전국技能경기 終盤돌입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사상 유례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참 및 도중탈락선수가 속출하고 있다.

기능경기대회본부집계에 의하면 26일 현재 68명의 선수가 불참하거나 탈락, 7백26명만이 경기에 임하고 있다.

특히 주조·석공·미술도장·목공예·합복등 5개종목을 제외한 34개종목에서 1~4명이 불참하거나 탈락됐는데 8명이 출전키로돼있는 도자기종목은 50%(4명)나 불참했다.

대회본부는 이처럼 탈락자가 많은것은 이번경기가 선수들의 대거참여로 경쟁이 치열하기때문인 것으로 분석.

한편 이번대회의 종합우승을놓고 각각 1백11명, 1백7명, 1백1명의 선수를 출전시킨 서울·경기·부산이 각축을 벌일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주관하고있는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와 충남도는 지난24일 비때문에 취소된 선수단 시가행진을 본경기가 끝나는 오는28일 상오10시에 실시키로했다.

○…미용경기장에는 선수들이 제각기 모델로 데리고 나온 미모의아가씨 20명으로 붐벼 마치 美人대회를 방불케했다.

모델중에는 서양 여자로 착각될정도로 서구적인 마스크도 더러있었는데 경기장안은 각종 화장품냄새로 코를 찔렀다.

○…시계를 분해하고 부속을 갈아끼며 고장부분을 정확히 고쳐야되는 시계수리종목의 경우 멀쩡한 신품을 일부러 망가뜨려 선수들에게 과제물로 제공했다.

○…이번대회에 새로 추가된 도자기부문에는 당초 선수8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4명이 낙착, 39개 종목중 경쟁률이 가장 저조했다.

호리박병·대접·주판형화병등 12점을 16시간내에 완성해야 하는 이종목은 우리의 전통공예분야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으나 의외로 선수들의 성적이 부진하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말.

○…이번대회에 선수8명(기계제도1·선반2·가스용접2·전기용접1·목공1·옥내배선1)을 파견, 처녀출전한 제주도는 대회3일째되는 26일현재단 1명의 탈락자도없이 경기에 열을 올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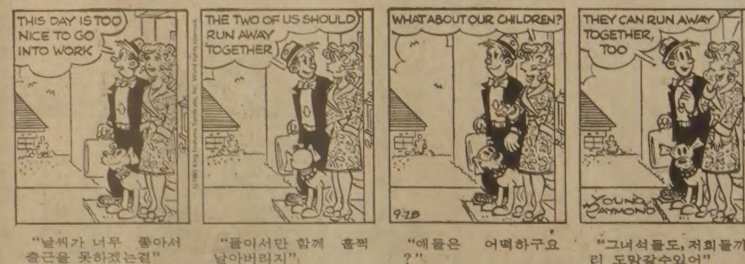
선수단 인솔자인 高庸文씨(36·濟州상공회의소진흥과장)는『선수들이 예상외로 선전분투하고있다』고 말하기도。【大田=聯】

自然보존 學術조사

內務部·自然보존協 獨島·鬱陵島 일대

내무부는 오는28일부터 10월3일까지 한국자연보존협회와 공동으로 동해안 獨島와 鬱陵島의 동식물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한다.

블론디 本社特約·連載漫畫 딘·영 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출근을 못하겠는걸" "둘이서만 함께 훌쩍 날아버리지" "애들은 어떡하구요?" "그녀석들도, 저희들끼리 도망갈수있어"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비즈네스는 전화가 바빠야 합니다. 한국일보 광고는 귀하의 전화를 바쁘게 해드립니다.

QUALITY AD. = QUALITY COMPANY

한국일보 • THE KOREA TIMES

533 2361 ~ 4 광고부일동 : 송 광 호, 최 성 조, 곽 영 신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그로서리 가게 :
파타임 일할분 구합니다.
☎ 425-2905(돈밀·에그린톤 지역)

입주하셔서 애기와 살림해 주실분
구합니다.
☎ : 244-7303, 663-1053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1명
626, 628 BLOOR ST. W

경험있는 풀타임 헬퍼 구합니다 :
미시사가 지역
☎ : 822-4895(B), 823-2445(R)

도나스 가게 풀타임 또는 파타임
헬퍼 구함
☎ : 881-2019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368-2819 미스타 웡

함께 일할 분을 찾습니다 :
월~금(아침9시~6시30분 저녁)
스타트 페이 $6.50
3개월 후부터 $7.
드라이빙 면허가 있어야 함.
연락처 : 624-0511(아침 9시~저녁6시30분 연락바람)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77-1110

주말 파타임 헬퍼구함 :
마캄과 로렌스
☎ : 438-1528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구함
미세스 김
☎ : 755-1746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경험있는
파타임 학생헬퍼 구합니다.
☎ : 267-4770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주3일
☎ : 244-5248, MRS. THOMAIDIS

2개월 동안 일본정원사와 잔디 깍기등 정원 손질
할수 있는 헬퍼구함. 영어 또는 일본어로 문의바람
☎ : 298-3316

벡커 헬퍼구함 : 남자20세~40세정도 오전5시부터, 여자
캐쉬어 오전8시~오후4시
☎ : 481-3677(오후1시~4시사이) 미스타 박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 두채의 아파트 매매 : 좋은수입과
두개의 휴식처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기회
☎ 763 6287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 530-0748 DAVID

매매 : 성업중인 드라이크리닝
PICK-UP가게 매매
☎ : 690-3256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다운타운 멀안에 있는 FAST FOOD STORE임
연 순이익 $35000. 부부가 하기에 아주 이상적임
주6일 영업. Asking $33000중 모게지 $7500가능함
☎ 536-0463

벡커스토아 매매
오후 6시30분이후. 아침10~12시 연락바람
☎ : 439-3044

전화 후렌치 스토아 매매

당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전국에 걸쳐있는 전화 후렌치
스토아에 흥미가지신분 구함.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음. 투자액 35,000~60,000달러
(모든경비 포함) MR. MONK
☎ : 445-7974 1875 Leslie Ave. unit 18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 535-2804 미세스 김

매 매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소 : 3325 BLOOR ST. W. 직접 내방요함.

한국일보사 광고부
533-2361
비자와 매스터카드로!
VISA master charge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
① 주매상 5500달러(프라자안에 있음)
② 주매상 3300달러(아파트 포함)
THE PERMANENT R. E. 황순일
☎ : 481-3443, 745-5483

몬트리올에 있는 가게 매매
성업중인 그로서리 점포및 건물
위 치 : 6951 SHERBROOKE W. MONTREAL
주 매 상 : 7,000달러 이상
건물몰게지 : 13¾%(85년 7월까지)
전 화 : (B) 481-8131, (R) 481-3893

BASKIN ROBBINS아이스크림 스토아를
매매코자 함.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방문및 전화는 매일 12시 이후에 하시기 바람)
360 GEORGE ST. NORTH PETERBOROUGH
☎ : 705-743-3152 MR. 유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365일 컨비니언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PARKING하기 쉬운 MAN ST.에 위치. 시설완비
되있음. 다운페이 $20000에 단돈 $39500의 좋은
기회 L. VAN LIESHOUT R. E. LTD.,
☎ : B) 705-457-2414,
705-457-2460 (Mike)
705-457-2071(Larry)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 ASKING $10000.
MACHINE 과외수입 $800. 2층 살림집있음
☎ : 1-387-3983

개인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PRIVATE HARDWARE STORE FOR SALE)
좋은 자리에 있음. ASKING $41,000.
더 문의 하실분은 791-8771. 9시에서 6시(월~토)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 : 791-8771 해밀톤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로타리오 머신+우체국 주인이 은퇴하므로
팔고자 함. 엘스미어 로드(토론토)
☎ : 889-6555 Mr. LISS(브로커)
오후6시 이후 전화요망 영어로 문의할 것.

FOR SALE
TRIPLEX집 : PRIVATE SALE(로알욕×레이크·셔)
교통 아주편리(서브웨이), 액설런트 콘디숀(Hot water
heating by gas), 방11개, Moving out of city.좋은 모게지
가능. MR. ORVAL HANNA
☎ : 247-7161(B), 259-9913(R)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츄리냉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손꽃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 : 651-9324(B), 226-5430
20 ROGERS RD. 번 달 원 (R)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한방원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옥추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기 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킹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SOMÉ JEWELLERY 쏘메쎄랴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225-4641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모눈종이 위의 生 〈212〉

趙善作 作
禹慶熙 畵

돌개바람불다 ⑱

나는 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알수없었다。그를 따라 복도로 나오자 그는 손에 들고있던 점퍼를 내등에 걸쳐주었다。나는 그의 조그만 친절에도 희망에 벅차는 느낌이었다。아래층으로 내려와 호텔의 현관을 빠져나올때 프런트의 종업원이 의아한 시선으로「어디 가십니까。이렇게 늦게?」하고 물었고, 그는「바람 좀 쐬고 오겠소」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를 어딘가 다른 숙박업소로 데려가려 한다고 생각했다。철야로 영업을 하는 찻집 따위가 있을 것은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내가 그의 옆에 눕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그러니 내 이런 희망적인 생각 한쪽에는 확안도 없지 않았다。부산이라는 고장에서는 시체를 토막내어 유기하는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빈발하는 곳이기도 했고, 그렇다면 그는 나를 그런식으로 해치우고자 마음먹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세호에게 전화를 건 일도 없고, 서울에서는 누구도 내가 부산에 내려온지 알지 못하며, 그가 유갈목과 윤나미 모녀의 입만 틀어막을수 있다면 내 실종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 이런 얼토당토 않은 불안이나 희망을 모두 배제하고 호텔구내의 정원쪽으로 발길을 돌렸다。군데군데 눈의 자국이 희끗거리고 여기 저기 놓인 벤치도 희끄무레하게 빛나보였으며, 어둡고 춥고 쓸쓸한 정원이었다。그곳에서는 하얗게 불켜진 호텔의 현관이 빤히 보였으며, 호텔 건물 전체의 윤곽도 어슴푸레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가 장갑낀 손으로 벤치위의 눈을 쓸어 내리고 말했다。

「앉아」

나는 그가 말한대로 그가 눈을 치운 부분의 벤치 위에 가만히 앉았다。

그는 내 앞에 선채로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눈치였다。그러나 그의 입에서 다음에 나온 말은 생각한 흔적을 찾아 볼수없는 맹꽁이 같은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러는거야? 어쩌자고?」

나는 푹 웃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나도 맹꽁이 같은 말로 대꾸했다。

「뭐가요?」

「뭐가? 뭐가라니?」

그는 갑작스럽게 화를 돋우어서 팔 하나를 들어올렸다。순간적으로 나는 방어의 태세를 갖추며, 아 그가 나를 때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그러나 나는 두렵기보다 기묘한 흥분이 앞서는 느낌이었고, 상기한 표정으로 그가 올려 뻗었다가 어쩌지 못하고 있는 팔을 올려다 보았다。

그것은 왼 팔이었다。나는 다시 한번 그것이 왼 팔임을 확인하며, 아 그는 옛날에도 왼손잡이였지, 만원인 음식점 같은 데서 다른 손님들과 합석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란히 앉게 되었을 때 그의 왼 팔과 내 오른 팔은 곧잘 부딪치곤 했었지, 그때마다우리는 마주보며 킥킥이 웃곤 했었지, 하는 생각들을 나는 재빨리 해냈다。

「왼 팔이네요?」

탄성을 올리듯 내가 무심코 소리쳤고, 그는 올려메었던 왼팔을 주체하기 곤란한 물건처럼 어물어물 내렸다。그에게도 아마 옛날의 일들이 떠오르는지 쓸쓸하게 웃고나서 말했다。

「종희, 우리 제발 이러지 말자。내가 빌게」

「잘못한거나 뭐 있으세요?」

내가 짐짓 뾰루퉁해져서 말했고, 그는 거북한 목소리로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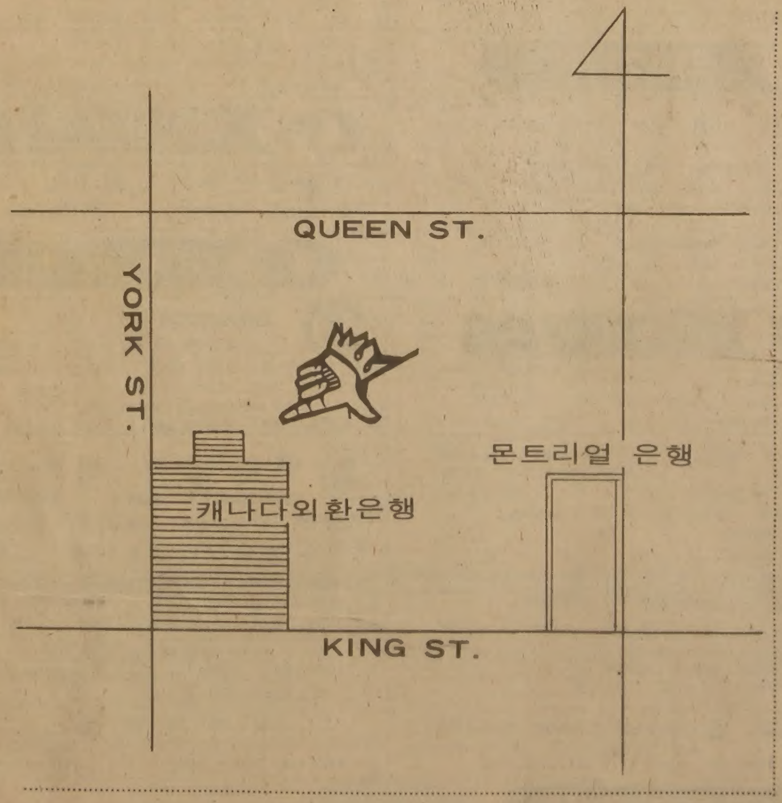
「있지」

중앙 AUTO-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축 개 점

1981년 10월6일부터

캐나다외환은행이 아래장소에서
개점 하오니 교민여러분의
많은 애용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 오전9시～오후4시
영업장소 : EXCHANGE TOWER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Toronto, Ontario M5X 1E5
전 화 : (416) 364－2890

KOREAN EXCHANGE BANK OF CANADA

캐나다외환은행